

교육개발

2013

Autumn

Vol.40 No.3

파워 인터뷰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특별기획 I

특별강연 :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

특별기획 II

‘창조경제! 교육이 핵심이다’ – 창조경제의 구현과 교육의 역할
학교폭력대책의 성과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한국교육의 글로벌화, 추진과 전망

이슈와 전망

인성교육 실천 본격 추진 1년, 성과와 과제, 전망

포커스

학벌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NCS 구축과 활용

정책과 현장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과 전망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우리 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외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06

22

76

82

118

06 파워 인터뷰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2 특별기획 I
특별강연 :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
반기문 / 유엔 사무총장

32 특별기획 II
'창조경제! 교육이 핵심이다' - 창조경제의 구현과 교육의 역할
박영숙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학교폭력대책의 성과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황홍규 /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한국교육의 글로벌화, 추진과 전망
강영순 / 교육부 국제협력관

56 세계의 교육
'창의성이 경제자원' 창의인재 만들기...英·美·佛·伊·EU·日 사례
최진숙 / 파이낸셜뉴스 기자

EU 대학생 교환 '에라스무스' 300만 돌파...현황·성과·과제·전망
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 적성·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교교육으로 인재 양성
정현숙 / 작가

76 세계 속의 한국교육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초·중·고교 정규과목에 한국어 채택
김윤기 / 교육부 교육연구관

82 이슈와 전망
인성교육 실천 본격 추진 1년, 성과와 과제, 전망
안양욱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89 포커스
학벌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NCS 구축과 활용
나승일 / 교육부 차관

99 정책과 현장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과 전망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6 현장르포
풀뿌리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교육 실현 - 서울 매봉초등학교
김경학 / 경향신문 기자

서울시 유일의 공립 대안중학교 - 서울 한산미래학교
유현진 / 문화일보 기자

배움과 돌봄 중심의 차별화된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 경기 남양주 퇴계원고등학교
설향기 / 경기 남양주 퇴계원고등학교 교사

전통과 첨단 조화...산업계가 좋아하는 대학 - 성균관대학교
정태웅 / 한국경제 기자

122 교육통계 FOCUS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이 및 학업중단자 현황

124 KEDI 소식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박영숙(위원장), 김주아, 김진희, 문성룡,
박병영, 박성호, 이선호, 임후남, 전인식,
정바울

편집실 | 정미영, 한지연, 이훈, 정지영, 양인실

디자인, 인쇄 | 디자인 프리즘 02-2264-1728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3년 9월 17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변경 | 2013년 1월 23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인성교육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



인성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그 주요 덕목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다움’ 즉 ‘인성(人性)’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시절에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주로 인성교육이 행해졌지만, 오늘날 핵가족이 대세가 되고, 또 맞벌이 부부나 홀부모 가정이 많아지는 등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성교육은 점차 학교에서 주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한 때 학교보다는 종교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주로 행해지기를 기대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주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비록 오늘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그 본질상 실천을 전제로 하는 인성교육은 지속성과 통합성이 필수적이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성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니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서로 존중하고 열린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열린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핵심인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는 타율적이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을 자신이 세운 규율에 따라 바르게 절제할 수 있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율적이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자율적이고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개개인의 특성이나 의견의 차이가 '맞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참고로 종래의 선택형 시험에서는 선택지가 '정답'이 아닐 경우 '오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선택지를 선택하면 '틀린 답'이 되었다. 그래서 선택형 시험에서처럼 '정답'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선택형 시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기성찰평가나 수행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특성이나 의견에는 '맞고 틀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교사는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여 서로 대화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었다.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토론식 수업이나 협력학습 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역할극이나 연극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할수록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열린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잘 알고 보면 모두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타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생기게 된다. 그러한 편견과 오해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개인 간, 집단 간 갈등과 분열, 그리고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서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인성교육의 내실화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다움'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서로 존중하고 열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파·워·인·터·뷰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담_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부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입 간소화 및 발전방안’ 틀 확실히 잡을 것”

“고등교육 재정 확충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고, 지방교육 재정 확보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증액할 계획”

“교육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역시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역시 △선택형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NEAT)의 수능영어 대체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저는 특히 대입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개선은 사교육 줄이기나 공교육 활성화 등 모든 교육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학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틀을 확실히 잡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입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신학용 위원장은 또 “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은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증액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 창의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교육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시도가 확대 되고 있는 추세”라며 “교육기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통합, 융합, 연계의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평적 나눔에 의해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8월 22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학용 위원장을 만나 취임 100일의 소감과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관한 견해,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진단, KEDI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지 10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와 품고 계신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순근 원장 : 지난 8월 10일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라 칭함.)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지 10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와 품고 계신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 대상 산하기관, 소속 공공기관만 해도 100개가 넘고, 각종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특히 예전 18대 국회 시절 교과위원회는 특하면 여야 간에 극심한 이념 대립과 다툼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문제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일성으로 "다툼과 파행만 일삼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공정하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회 교문위를 이끌어 왔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껏 별다른 파행 없이 수많은 법안심사와 현안보고,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일하는 국회 교문위, 성과를 내고 민생을 헤아리는 국회 교문위가 되도록 힘을 계획합니다.

백순근 원장 : 19대 국회 교문위가 출범한 지 넉 달 정도 되었는데,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안고 있는 현안이나 시급한 과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분야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역시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역시 △선택형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영어 대체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저는 특히 대학입시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역대 정부가 그토록 노력한 사교육 줄이거나 공교육 활성화 등 모든 교육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공교육 정상화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의 틀을 확실히 잡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을 적극 검토해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호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유기홍 교문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특별법'도 교문위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이 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 야당 위원들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 교육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학교 교장이 교내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되어서는, 학교 비정규직군에 계신 분들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사용자가 돼야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19대 국회에서는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본인의 소질과 꿈을 키우면서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정만으로도 원하는 분야에서 열매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희망을 위원장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혹은, 견제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신학용 위원장 : 교육정책은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은 국회와 정부,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은 지원하고,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은 강력히 제지할 것입니다.

특히 결과 속이 다른, 말 그대로 '空約(공약)', 생색내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당정청 합의 결과라며, 고교 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지방대 육성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재원대책도, 대안도 없는 브리핑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위의 사안들은 국회 교문위가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알맹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MB정부의 교육정책은 눈앞의 불을 끄는 것에만 급급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

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듣는 국제중·자사고 정책, 입학사정관제 졸속도입, 무분별한 대학평가제로 인해 고등교육의 체계가 부실화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물론 각 정책의 각론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논의하여 국회에서 견제와 협조를 적절히 병행할 예정입니다.

백순근 원장 :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을 해 나가자'는 게 새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우리 경제가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변화하려면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업과 인성, 창의력이 균형을 이루는 융합 교육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융합)은 모든 분야에서 이공계·자연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으로 볼 수 있고, 융합·통섭의 인재는 더 나아가 인문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분명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모습과는 상당부분 다른 산업과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직업군의 다양화, 직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 등 성적과 입시로 달려오던 교육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학제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해,

취임 일성으로 "다툼과 파행만 일삼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공정하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회 교문위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고 민생을 헤아리는 국회 교문위가 되도록 힘을 계획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의인재가 제대로 길러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정부의 방안 외에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체험교육, 진로교육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창의인재 육성안'에는 창의교육 강화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예를 들어 영국의 창의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커리큘럼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 짚은 만들 수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영국은 창의인재 교육 목적 중 하나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창의교육, 융합교육의 교육목적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별 초·중·고 학습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해야 교육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제 간 융복합연구를 위한 충분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연과 학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융합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부 담당 실국에 예산증액, 정책적 배려 등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융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성방안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개인의 역량을 살리기 위한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과정을 일반교과 확대하며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창의인재가 제대로 길러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정부의 이번 방안 외에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학용 위원장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이를 위한 창의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치고는 못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창의인재 교육'의 부작용과 맹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창의인재 육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과정과 서열화 된 대학사회, 이로 인한 교육기회, 고용기회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번 교육부 등의 발표는 과거의 교육정책과 비교할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이공계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계 전공자들과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과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학사회의 구태의연한 카르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의 격차, 대입제도의 간소화 및 선진화 없이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은 어렵습니다. 창의인재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진로체험교육,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과도한 사교육 행태와 선행학습 풍토가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즉 고질적인 학업지시 위주의 공교육 문화는 확실히 개선되고, 창의인재 교육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 계획, 학년별 학습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 나와야 '글로벌', '창의인재' 등의 교육 모토가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학기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2015년도 희망학교 운영,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 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에 참석하셔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우려와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특히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지난 발대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준비하고 갖춰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진로교육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학교 경제교육, 금융교육 등과 같이, 유사 교과 교사들이 특별한 전문성이나 사명감 없이 진로교육을 맡는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확충, 관련 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진로·체험교육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조직이 외부기관과의 교섭에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습득 및 상황대처에 유연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부의 교육지원 업체와 연계될 때

는 부실과 비리가 개입되기 쉽습니다. 교사들이 진로·체험 교육의 전문지식과 트렌드를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외부업체와 교육협력 시에는 높은 도덕성도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학생들의 외부 교육활동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외부 교육·현장업체 등을 얼마나 잘 관리·감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공백기로 간주되어 자칫 집중사교육기간 또는 선행학습기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현재 42개의 연구학교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효율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교육부에 잘 전달되어, 진로체험학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 △대학별 전형방법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 △수시 우선 선발 전형 폐지 △수시 1·2차 원서접수기간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안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이 중시되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부가 대학교육 수요자 및 입학생 입장에서 대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방안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생색내기용' 대책 발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단지 대입 간소화를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과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학사회의 구태의연한 카르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의 격차, 대입제도의 간소화 및 선진화 없이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 교과시간에 가르치고, 학교 내에 대안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추가 조치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유도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발표했을 뿐이지, 단계적 실행계획이 생략되어 있어, 현행 3,200개의 대입전형 개수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2017년도 수능체제 개선안에서 현행 체제인 문·이과 구분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등학교 이과에서의 과도한 수학 부담을 줄여줄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반영이 유지되는 점, 특기자 전형 부분에서 스펙 제출을 금지하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대입 간소화 방안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8월 8일 교육부 주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사 수능 필수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강화를, 반대하는 측은 입시 위주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에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 27일 발표된 ‘대학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시안’에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학용 위원장 :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돼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부터라도 대학 자체적으로 한국사 성적을 요구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화되면서, 역사교육 강화 -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의 논의

가 꾸준히 있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교문위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교육부 발표 결과도 여러 차례의 당정 협의를 거듭한 끝에 도출된 것이므로, 한국사 수능 시험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여론은 충분히 모아져서 결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학습량 부담 증가, 사교육 시장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가 대입 간소화 방안 및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으로 인한 만일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정부가 지난달 23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 교과시간에 가르치고, 학교 내에 대안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추가 조치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부는 작년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을 엄중히 다루는 강경한 대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강도에 비해 실효성은 작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기존 대책들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수조사 세부자료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될 것 △학교 내 활동이 중심이 될 것 △사후가 아닌 사전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것 △인성교육이 병행될 것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부터 일선 교사, 학생들까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사안이 발생 시에는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교육적 회복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는 물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민간단체와 학계의 노력,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과 같은 유관 기관의 정치적 관심이 결집될 때 조금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는 교내 학습분위기 전환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8월 13일, 자율형사립고 선발 때 성적 제한 폐지,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전환,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일반고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 학생이 자사고에 몰리는 것을 막아서 일반고를 살리고 학교 간 서열화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로 일반고의 교육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또 다른 조언이나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일반고의 슬럼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들의 주치로, 일반고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수차례 열렸을 정도로, 일선 고교 현장에서 느끼는 일반고의 인재유출·슬럼화의 심각함은 수위를 넘었습니다. 저도 목적성을 잃어버린 특목고, 자사고의 범람과 일반고의 교육역량 저하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해 오던 차에, 교육부에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고교생의 70% 이상이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반고 발전 방안은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대책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자사고나 공립고 등의 무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특목고나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등 소위 말하는 '귀족학교'에 대한 개선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고에 매년 지원될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의 자사고를 무조건적으로 무력화하다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여론으로 인한 소모전이 예상되므로, 대학진학 시 고교선택 목적에 부합되는 학과나 계열에만 지원 가능하게 하는 등 현실적인 학교운영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없이 현재 추진 중인 '고교의 수평적 다양

학교장부터 일선 교사, 학생들까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사안이 발생 시에는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교육적 회복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는 물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민간단체와 학계의 노력,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과 같은 유관 기관의 정치적 관심이 결집될 때 조금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 오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는 현실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편법적인 특목고 운영이 확산되고, 이에 진학하기 위한 음성적 사교육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10월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누리과정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교육복지 투자 등으로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제반 교육여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긴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 오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끊임 없이 장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이러하기에 조금해 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앞서 말한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실패들은 보여주지 않, 성과주의식 교육정책의 기초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교육공약의 이행을 위한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교육재정의 실질적 마련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소요 재원 6조5000억 원 △반값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원 5조6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3조1000억 원 등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이 20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충방안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은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데 정부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무리한 추진으로 바닥이 난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의 미흡한 교육재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구인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여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전국 학교들의 화장실 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 노후화된 학생 화장실 설비를 교체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기재부 국비 예산의 순조로운 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인 결과, 인천 지역 기준 당초보다 11억원 증액된 4년간 208억원의 국비·지방비를 확보해, 특구 내 국제화 자율학교를 최대 10개교까지 지정 가능토록 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일선 학교의 열악한 시설물의 개선과 고등교육 재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OECD 평균에 걸맞은 교원 수 확보, 학교 조무직·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창의융합인재를 원합니다.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도움을 주고자 교육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기부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교육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문위 위원장으로서도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기부는 공공기관 · 기업 · 대학 ·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물적 · 인적자원을 유 · 초 · 중 · 고등 교육 활동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의 전 세계적 인 특징을 들자면 다양한 영역 간의 통합, 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 접근성의 확대를 위해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기존의 관점인 수직적 나눔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통합, 융합, 연계의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수평적 나눔에 의해 연계를 맺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저는 국회 교문위 소속 김세연, 강은희 의원, 인천 계양갑 최원식 의원까지 네 명의 현역의원이 모교 학생들과 함께 EBS 장학



퀴즈에 출현했습니다. 맞힌 문제만큼 점수를 얻어, 그에 상응하는 도서를 백령도 학교에 기증하는 목적의 행사였는데, 네 명의 의원들이 뿔뿔 뭉쳐, 1,230점이라는 고득점을 취득했고, 여기에 프로그램 후원사인 SK의 지원까지 더해져 3,000만원 상당의 도서가 백령도 학교 도서관 세 곳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로 인해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고, 교육기부의 나눔의 문화를 넓힐 수 있다고 느껴,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교육기부 참여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천지역의 우수한 교육기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문예전문학교는 인천지역의 생활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인데, 2008년부터 중·고교생 약 4,600명을 대상으로 이색직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교육기부를 펼쳐와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시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연평도 학생을 학교로 초대해, 바리스타, 케이크, 꽃장식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 연평도 포격의 충격으로 불안하고 어두웠던 아이들의 분위기가 행사과정에서 웃음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은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데 정부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무리한 추진으로 바닥이 난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관리부처 통합,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품질관리, 교사 자질 및 양성, 재원 등 추진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추진위원회에 어떤 충고랄까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재능의 교육기부와 나눔이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힐링'이 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교육기부를 하기를 희망하는 단체와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단체를 연결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제2, 제3의 인천문예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부단체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내년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몇몇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주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선거비용도 많이 들며 투표참여율도 저조해 선출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교육감 선출제도나 후보자격 등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교육에

산과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 관련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등 17개 사항을 관장합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역할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역할을 잘 못해 만약 현장에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적이지 않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비리의 온상이 된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총 등 교육단체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을 추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념대립 △과도한 선거비용 △선출방식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등입니다. 각 단체와 전문가별로 교육감 선거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상이하므로, 어떤 방법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공영제, 교육감 후보자격조건 유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 13일 정부의 '인천 계양·서구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서구 지역에 최대 10개의 국제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국제화 전담교원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저는 지난 6월 12일, 교육부로부터 인천 계양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종합

계획안을 사전에 보고 받고 이 세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 계양구·서구에 국제중은 설립하지 않는 대신 국제화 자율학교를 최소 6개에서 최대 10개교까지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총 208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국제화 특구는 인천 계양구·서구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총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은 초·중·고등교육,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특구의 추진 목적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학교로 특구별 계획에 따라 기존의 초·중·고등학교를 공모·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특구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연차별 평가와 5년 단위의 종합평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구사업을 통해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신형 명문학교들의 탄생과 글로벌 교육환경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백순근 원장 :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5, 6월 수요자 학부모 여론조사를 하였으며, 지난 8월 말 통합 모델안을 개발하였고 내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모델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관리부처 통합,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품질관리, 교사 자질 및 양성, 재원 등 추진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추진위원회에 어떤 충고랄까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용 위원장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소모적 논쟁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통합이 공통분모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려운 사안들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률적 근거가 다르고 업무담당 기관이 이원화되어 통합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각 사안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현재 각자의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며, 선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고,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운영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비현실적인 유치원 승계절차를 개선해 설립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구성요건에 맞을 시 차입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법규는 현실화하고 감독권은 강화하여,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현재 각자의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며, 선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고,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지역 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대학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번 해법제시가 성공하려면 정부나 대학의 어떤 결단과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순근 원장 :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줄곧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8월 1일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지표 및 방법 등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허용해 주던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7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2018년부터 대학교 입학정원은 약 56만 명으로 고교 졸업생 55만 명보다 1만 명 가량 많아집니다. 이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부가 1996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시행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앞으로 부실·비리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부실 대학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해산하는 대학법인이 보유한 잔여 재산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준다는 대책 정도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규모만큼 퇴출 대학을 선정할 것인지, 좀 더 상세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신학용 위원장 : 창조경제는 그 개념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만을 염두에 두는 정책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CT)등 이공계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로 몰아갈 경우,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넓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 융합연구가 자칫 이공계열의 독점물이라고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인문사회계열에도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우수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

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지역 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대학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번 해법제시가 성공하려면 정부나 대학의 어떤 결단과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지역 거점 대학의 부실화에 대해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경고를 보내며, 교육당국의 지원 확대, 정책 배려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교문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이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올해 6월 국회 교문위에서 관련법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제야 지방대학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기업들은 지방대 출신을 외면해 지방대생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대학 육성대책이 솔하게 나왔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효과가 반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그들이 고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합니다. 지역의 우수 고교생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그나마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대학은 대학교육의 63%를 담당하지만 취업시장에선 찬밥 신세입니다. 지방대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에 버금가는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우대를 해준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한 전혀 없습니

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의 방안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창업 휴학을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랄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학용 위원장 : 미국에서는 교내 창업을 권장하고 교수가 직접 제자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생이 교내 창업을 하면 교수에게 꾸지람을 받거나 학교 행정제도에 당면하기 십상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학생이 회사를 세우면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지난번 빌 게이츠 내한 당시 "사업을 구상 중인데 자퇴하는 게 어떨겠느냐"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발언은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창업휴학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은 모호하며, 심각한 청년실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청년창업의 카드를 성급히 꺼내든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인 창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개별 대학차원이 아닌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주도형 및 대학사회 자율적으로 대학



앞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그들이 고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합니다. 지방 대학은 대학교육의 63%를 담당하지만 취업시장에선 찬밥 신세입니다. 지방대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에 버금가는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우대를 해준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의 청년창업 네트워크 연결 매개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 본질의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꿈의 실현을 돕는 새 정부의 교육기초는 위원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교육 구호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권이 약해지고, 교권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MB정권의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졸속 도입되어,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민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교육정책의 기초와 정책은 환영하지만, 재정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특히 지방교육 재정을 고갈시키는 '보육대란' 등의 일방적인 떠넘기기식 중 앙정부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2008년 월 900만~1천만 원에 이르는 세비 전액을 인천 초·중고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6년째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어떤 신념, 공직관, 국가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국회의원으로 3선을 하는 동안 변함없이 사용했던 슬로건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公約이 아니라 空約만 한다, 놀면서 돈만 받는다'는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주민들의 세세한 민원도 마치 구의원이나 구청장처럼 해결해 주거나 노력해 왔고, 계양구에 수많은 국비와 사업들을 따와서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세비 전액을 인천 초·중·고교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벌써 햇수로 6년차인데, 국회 유일의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인 셈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셈이고, 놀면서 돈을 받지도 않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신조를 지키며 인천시와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 본질의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 저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중심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은 지양해 왔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철학 덕분인지, 두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시오.

신학용 위원장 :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틀을 바로 잡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며, OECD, UNESC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부와 교육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맡은 바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P R O F I L E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1952년 부산 출생.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해병대(해간 58기)에 입대하였으며 중위로 예편한 이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과를 수료하였다. 1988년에 법원 사무관(제9회 법원행정고시)에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법원에서 근무하였다. 1993년부터는 법무사로 활동하였고, 김대중 前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별보좌역을 맡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에 당선된 후, 제19대까지 내리 3선을 현 지역에서 당선했다. 제18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에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직을 맡은 후 현재까지도 활동 중에 있다. 당선 후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공동대표이며,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이고, 2012년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올해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임 중에 있다.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 1)

특별강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충주 시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무더운 날씨,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참석
해 주셔서 고맙고 기쁩니다. 고향에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살다가,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공부하고 또 외교부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자주 오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 부모님과 형제들이 계속

1) 이 글은 여름 휴가 차 고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8월 25일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충주시청 단금홀에서 모교인 충주고 후배들을 비롯, 충주 시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행한 특별강연을 충주시청과 외교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취재해 정리한 것임.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늘 이곳 고향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올해 93세이신데 아직 건강하셔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충주는 내륙의 거점도시이고, 중원은 그전부터 한반도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중원탑도 있는 그런 곳이죠. 충주호, 탄금호, 월악산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새삼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큰 정기를 받아 앞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종배 충주시 시장님께서 충주를 2020년까지 인구 30만 명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꿈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충주에서 개최된 국제조정경기대회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가슴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인구 2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80개국 이상의 국제 선수들이 참가한 이런 큰 규모의 대회를 한 치의 어려움 없이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부듯했습니다. 충주시민이나, 충북도민 나아가 한국 국민의 자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구 38만의 도시 여수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놀랐는데, 지금 충주를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큰 긍지를 느낍니다. 그것이 제 고향 충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하마솔트 사무총장에게 탄원서 보내면서 꿈 키워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참 큰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좋을지.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한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변영태 당시 외무(부)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충주 시내의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교현초등학교에서, 물론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아서 들었는데,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에 앞서 잠시 옷통을 벗으시고 아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던 세계 정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등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저분이 참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처음 만난 외교관이고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뒤를 따라갈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땀가, 1956년에 유럽에 있는 헝가리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련제국의 침략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탱크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는 등 봉기를 했죠. 사실 그때 우리는 헝가리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고, 남북이 완전히 대치상태에 있었죠. 전 세계가 동서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을 때, 그 때 우리가 뭘 알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때 반공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헝가리 시민들을 돕자고 했죠. 그 때 저는 선생님께서 써 주신 탄원서를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하마솔트에게 보내 헝가리의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을 공산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존 F. 케네디 미국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때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런지 느끼는 바가 훨씬 더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받은 그 느낌, 변영태 장관님을 만났을 때 느낀 그 느낌, 그리고 헝가리 학생과 시민들을 생각하고 다그 하미숄트 유엔 사무총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던 그러한 기억. 이런 것이 지금 보면 다 그대로 어떻게 맞아 들어간 겁니다. 제가 외무부 장관이 되어서 변영태 장관님의 뒤를 이었고 다그 하미숄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뒤를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제가 느낀 바가 상당히 깊고 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명을 주고 여러분이 저한테서 어떤 inspiration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듣고서 “아, 이것이 참고가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큰 관계가 없다 여기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국경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 남을 도와라!

제 평생에 나침반으로 생각한 두 가지(말)가 있습니다. 첫째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42개국의 학생들과 함께 만났는데, “가끔 가다 입장들이 다르고 가끔 가다 어떤 나라의 일을 잘 하고 잘 못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동·서양의 벽이 높았고 갈라져 있었는데, “세상엔 국경은 없다(There are no national boundaries).”고 얘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럼 문제는, “우리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There is only a question of whether we can extend the helping hand).”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은 없는데, 우리가 남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김형욱’

이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기억 못하실 테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때, 그 교장선생님께서 입학식 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머리는 구름 위에 두고, 두 발은 땅을 굳게 디디라.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라.” 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이나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나. 그래서 어떤 미래에 나침반이 될 만한 말씀을 제게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꼭 그 말을 합니다. “국제 시민이 되라.”, “외교관이 되라.” 고. 그리고 “머리는 구름 위에 두라.”는 말은 “높은 이상과 큰 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두 발을 땅에 굳게 디디라.”는 말은 “동시에 현실 감각을 가지라.”는 주문입니다. 꿈을 아주 크게, 높이 갖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그 꿈의 깊이와 넓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이상과 꿈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한 “지금 국경은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광속도로 변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구 반대편 끝까지 0.1초 내에 도달합니다. 모든 문제는 단 하나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 · 빈곤의 퇴치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또 질병 문제, 전쟁, 평화, 인권, 도시화로부터 생기는 많은 문제, 기후변화 문제, 해양오염 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연계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interdependent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선을 충주시에만 두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시는 22만 명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크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는 0.6%

밖에 안 됩니다. 0.6%. 여기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따져 봤자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사실은 좁지만, 아직은 꽤 넓습니다. 각자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75억 명이 살고 있고, 약 20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촌은 지금 하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세상. 비록 각자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국경은 갈려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의 national boundary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50년 이상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 전에도 누군가 얘기를 했으며, 이제는 우리 모두 그것을 실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합니다. 충주시에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충주시나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곳에 있으면 벽이 너무 높아 바깥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서 보면 세상은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병 들고 가난하며 불공평하고 부정한, 그래서 어렵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인 제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 모아서 75억 명의 인류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소위 글로벌 시티즌이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만 글로벌 시티즌입니다. 세계 시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2006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후 한국을 떠나면서 국회에 가서 국민과 국회의원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는 한국 속에 세계를 심고, 세계 속에 한국을 심자. 한국 속에 세계가 있어야 하고, 세계 속에 한국이 있어야 한다. 한국과 세계는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떠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비전을 펼치고 있고,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교육과 교육열에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한국의 훌륭한 교육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연장 밖을 나가 보시면 저에 관한 활동사진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동티모르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초등학교죠.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학교도 둘러 보는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현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아프리카에도 없습니다. 그때는 교실이 다 파괴되고,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할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빈장소만 있으면 교실로 만들어 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열린 사회, 서로 연계된 사

회에서 과거의 틀에 갇힌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주시의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국제 시민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으로 나아가 가십시오.

‘passion’과 ‘compassion’ 함께 가져야 균형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을 때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하기로 마음 먹은 일이나 목표는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옛말에,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더라도 나는 백 번 노력을 해서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아프리카나 오지에 출장을 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아니 이 학생이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voluntee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KOICA에서 나왔는데 volunteer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어떤 단체에서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보내 봉사활동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은 어떠냐”,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현지 주민들과 같이 섞여서 산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내가 한 2~3년 이런 고생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40~50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유엔을



방문해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대부분 연수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거든요. 미국에 온 기회에 유엔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가끔 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제가 1960년에 와서 보고 느낀 감동, 또 inspiration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느끼지는 잘 못할 거다. 한국에 없는 것을 미국에서 찾으려고 해 봤자 그것은 허사다. 왜냐하면, 한국에 없는 것은 미국에도 없다. 또 한국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미국에 와서 배우는 건 아마 어학 정도를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아프리카와 같은 데를 가라. 아프리카를 가서 보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아마 그대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영어로 '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passion을 갖는 것, 대신 그 깊이, 높이, 넓이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passion이 지나치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잘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사람은, 자기만 잘 되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서, 남을 생각하는 compassion을 가져야 합니다. passion과 compassion 두 가지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균형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과 한국 학생들은 compassion을 기르는 것보다 passion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 자기 꿈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사회는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밖을 잘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깥을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passion과 compassion을 동시에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성적과 경쟁만을 추구하면 학생들도 그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부터라도 시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유엔이 지향하는 모토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이상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peace', 둘째는 'development', 셋째는 'human right'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고 누리며 살고 있죠? 물론, 한국은 아직 분단되어 있고, 67년이 지나도록 정전상태에 있으니까 peace에 관해서는 한국 국민들과 더 나아가 유엔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이룰 때 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모두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매사에 문제의식 갖는 게 중요

compassion과 관련해서, 소위 개척정신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Can do spirit'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거의 브랜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까지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제가 느끼는 것은 현실을 냉철히 볼 때,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critical mind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것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되, 또 현실을 너무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가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



한민국이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말이죠. 저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그 때부터 4.19도 일어나서 학생들이 거의 매일 같이 데모를 하고, 물론 이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때 데모 를 하던 사람들은 아주 건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그런 문제의식을 말입 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만큼 민주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 아간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환영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최근 유엔에서 경험한 가슴 뭉클했던 두 가지 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 6월에 뉴욕의 할렘에서 고등학교 학생 들의 졸업 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렘이라는 곳이, 뉴욕이 크고 번영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 기에,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미국에 온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생들 이 교육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교장 선생님이 할렘의 고 등학교에서 교육을 한국식으로 해야겠다고 선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들여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까 학생들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한국말도 하게 된 것이죠. 거 기서 미국의 아이들에게 아주 절도 있게 가르치는 한국 대학 생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학교 1회 졸업생이 유엔 사무총장 이 와서 처음으로 한글말로 연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제가 간 것입니다. 거기에 보편은 'Hard work equals success'라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이 뒤따른다.' 그러한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은 여러분!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fzai)라는 소녀 이름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학생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 특히 여학생들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위치가 아주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 11살 밖에 안 된 이 여학 생이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무식하 고 몽매해서는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11살 짜 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탈레반에 게는 아주 가시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 여학생들, 여 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래서 말랄라는 이후 18살 때까지 계속 이 운동을 하다가 탈레반이 쏜 총에 머리에 총상을 입고 거의 99.9% 죽은 사람이었는데, 요즈음 의술이 발달해서 영국 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7월 12일이 말랄라의 생일 이었는데, 유엔에서 7월 12일을 '말랄라 데이'로 정하고 이 여 학생을 초청해 천여 명 씬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을 불러서 생 일파티도 해주고, 교육에 대한 불꽃을 지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때 대단했죠. 그 때 모두가 뭐였냐면, "A girl with a textbook"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책을 읽고, 여학생이 머리로 세상이치를 깨우치고 문제의식을 가진 여학생이 많아지면 많 아질수록 그 사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학생 중에는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별로 신 문에도 안 나니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이 일 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여성 교육, 여성 empowerment, 여성의 권리 향상. 이 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묻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아주 밝습니다. 유엔은 여성의, 우선 양성 평등 gender equality와 women empow- erment, 권리 신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 민국이 동북아시아 최초로, 상당히 보수적인 동북아 세 나라 가운데 여성대통령을 처음으로 배출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

라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랍의 봄’,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심 가져야

오늘날 세계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3년 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미 민주화바람이 휩쓸고 지나가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억압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랍의 봄’은 튀니지에서 시작해 리비아, 이집트, 마지막으로 시리아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세지만, 아직 종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약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고하게 죽었고, 또 약 600만 명의 피난민도 생겨 났으며, 약 200만 명이 외국으로 도피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의 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글로벌 비전이나 세계적인 안목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지구촌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계속 전화를 받거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다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손을 뻗쳐서 이럴 때에 더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



니다.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이것은 정치도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이나 개발도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하며, 인권도 지속적으로 잘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물문제 등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미봉책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서 전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고 깊게 길러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데’, ‘높은 자리’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 해야

말씀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부서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대부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무슨 대학을 가야 하느냐,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비즈니스맨, 예술가, 음악가, 종교자, 작은 봉사자 등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데 가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름대로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합니다. 뛰어가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지만 같이,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가려면 지금처럼 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를 아울러서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혼자만 갈 생각만 하지 말고, 같이 가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유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는 일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십리 길,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합니다. 남한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북한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오늘 충주시청에 들어오다 선생님들 하고 youth camp에 참석했다가 이곳에 온 탈북학생 네 명을 만나 악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슴 뭉클하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거나 부유

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보고, 변화하여 서로 화해하고 어우러져 잘 살면,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되풀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나아가 우리 지구촌의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장래에 우리를 끌고 갈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되, 남도 생각하는 훌륭한 국제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챔피언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구호를 외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좀 기운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구호를 제창하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자 하는 구호는 “WE ARE THE CHAMPION!”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WE ARE THE CHAMPION!” 하고 크고 힘있게 외쳐 주셔서 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이주원 충주고등학교 학생회장 :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아니, 충주고등학교 대 선배님. 저는 충주고등학교 학생회장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렇게 반기문 대 선배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지금 현재 고3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도 역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셨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 글쎄,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고3때 입시공부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연민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좀 자연스럽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별로 간섭을 하시지 않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간섭도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24시간 내내 계속 공부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께서 “기문아!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밤 늦게 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할 때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사무총장이 된 지금도 늘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쁜 일이 많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저녁 때 밤 1~2시까지 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더 productivity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든지 무슨 목표를 정할 때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입니다. 뭘 해도 할 수 있는, 아주 패기가 있는 때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것을 그대로 잘 해나가는 것이 장래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연 충주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저는 충주여자고등학교 회장 홍수연이라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저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도 아주 중요하고, 우선 자기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남을 배려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남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나면, 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가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쪽에 사진이 보이는데, 저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티모르의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곳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부족했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세계를 보는 눈이 짧았구나, 남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바깥에 나가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부럽다 못해서 좀 시기도 합니다. 사실 시기 받으면 안 되죠, 부러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럼 시기도 받고 부러움을 받기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하기에 달렸습니다. 남을, 더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 안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그 사람들은 부러움으로만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같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전을 점점 더 넓혀 나가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창조경제! 교육이 핵심이다’ : 창조경제의 구현과 교육의 역할

클

•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I.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의 역할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

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제시된다(박근혜 대통령, 2013).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부각된 창의성에 주목하게 되면, 창의성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해야 할 교육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분야에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유형과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고,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한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교육체제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개편도 시급하다. 아울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교육분야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 탐색이 시급하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들에게는 국가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창조산업을 주도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국가현안으로 부각되는 사회적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 및 중산층 복원 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교육, 경제, 에너지, 환경, 평등 등)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의 변화 요구 및 지향성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이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창의인재 양성이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교육체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높다.

창의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부모의 빈곤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창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에는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해결과 미래의 행복국가로 유도하는 지향성이 있다. 지향성에는 다음의 몇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창조산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유형의 창의인재를 적기에 양성 공급하고, 이들이 미래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21세기 글로벌 학습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학습스킬을 갖추 수 있게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품격 높은 인재가 될 수 있게 지원한다.

둘째, 교육분야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민·관·산·학·연이 연계하여 학생의 창의성 개발과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셋째, 창조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한다. 인력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직업의 생애주기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체계를 지원한다.

넷째,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교육자원은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한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 자원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다섯째,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중산층 감소와 소득격차 심화, 노인인구 증가 등의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교육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탐색한다.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박영숙, 2013b; 83).

상기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요구나 창조를 위한 생태계 조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경제·고용·복지와의 연계 등과 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구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요구한다.

21세기 초반 교육개혁을 주도한 세계 주요 기구들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과 학습스킬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주요 기구의 하나인 21세기 역량평가 및 교수회(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ATC21S)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4대 핵심역량(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을 제시하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평가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스킬 파트너십 위원회(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P21)에서는 21세기 디지털 세대에 맞는 새로운 글로벌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2007년)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1세기 스킬 파트너십 위원회에서는 국가 미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습득해야 할 네 가지 학습스킬과 일곱 가지 스킬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네 가지 스킬이란 ① 비판적 사고, ② 문제해결 능력, ③ 컴퓨터와 기술활용 능력, ④ 의사소통 및 자기주도

능력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역, 2012; 231-232). 이들 세계 주요 기구의 추진 동향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21세기 글로벌 학습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 모델에서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되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소통하는 방식의 열린 교육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열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21세기 핵심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수법, 평가 등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글로벌 학습모델과 연계한 교육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창조경제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융합적 사고와 창조적 실행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 지원하는 사회적 학습환경도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Ⅲ.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교육지원 과제¹⁾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지원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에서의 지원 과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지원 과제로는 ① 21세기 글로벌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② 창조산업 인력 수급 증장기 전망체계 구축, ③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 현장 정착 지원, ④ 교원 정원 관리 및 양성체계 개선, ⑤ 학생 돌봄 강화 및 교육 서비스 제고, ⑥ 교육격차 해소 및 중산층 복원 지원, ⑦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 이들 지원 과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박영숙, 2013 b; 84-88)

가. 21세기 글로벌 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우리의 학생들을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학습 운동과 연계하여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높다. 21세기의 핵심 과목 및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체제에서 지원해야 할 네 가지 영역은 ① 기준 및 평가, ② 교육과정과 지도, ③ 전문성 개발, ④ 학습 환경으로 제시된다.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세부과제를 개발한다.

나. 창조산업 인력 수급 증장기 전망체계 구축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산업이다. 교육에서는 창조산업에

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수급 측면에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창조산업에 종사할 인력의 유형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수급 추정 절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로 개선한다. 수급 전망 작업은 인력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직업구조 변화, 세계경제 상황의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추정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구조와 산업시장, 노동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추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문기관에 ‘인력수급전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다.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 지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험기관의 참여와 유관 기관의 협업이 요구된다. 체험기관의 참여를 유인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기관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처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

1) 이하의 내용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2013. 7. 20.)에서 초·중등교육에 관하여 제안된 지원 과제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동 연구한 창조경제 구현 방안 연구(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에서 제안된 지원 과제를 요약·기술함.



가 형성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협의회가 열리고는 있으나 협업 내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기관장과 각계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은 민·관·산·학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학교의 세 주준에서 종적, 횡적 연계가 긴밀하게 형성되도록 정책을 조정함과 아울러 법적,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라. 교원 정원 관리 및 양성체계 개선

창의인재 양성을 담당해야 할 교원을 양성하고 교사 정원을 관리하는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교원 정원 관리는 안전행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다른 공무원과 함께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구조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창조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가 정원의 규모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양성기관의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면서도 양성인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는 창조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 규모는 부처 간에 조정하여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운영 방식과 학년별 평균 수업 시수, 학급 수 등의 학교운영 방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교원 정원 규모는 누구나 공유할 만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마. 학생 돌봄 강화 및 교육서비스 제고

학생에게는 더 많은 개별 돌봄이 요구되고,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이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한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시설, 경영, 학습자원 등의 관련 요인을 연계, 운영하도록 한다.

학생의 개별 돌봄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방과후학교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학생 참여율도 높으며, 수요자 만족도도 높다.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기관 단체 간의 밀접한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강사의 확보, 학교 교원 업무 경감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는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가 높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대부분은 오후 돌봄과 함께 저녁 돌봄도 요구하고 있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높다(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2013). 특히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방과후 교육 돌봄지원 센터

를 늘리고 돌봄인력을 증원하여 학생 개인별로 맞춤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근무조건을 차이를 개선한다.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여 교사의 수업시수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준비시간을 보장하며, 교사간 협의회를 일정 시간대로 정례화하는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

바. 교육격차 해소 및 중산층 복원 지원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 복원 정책을 지원하도록 한다. 과대 규모의 학교는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선되어야 하고, 학급 규모 또한 학생의 개별 학습과 토의 학습이 가능한 적정 규모로 개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개별 학생들에 관한 심층적 이해,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정도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하도록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최근 학교에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로 설치하자는 요구가 높다.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보육과 노인 보호를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일찍 전개된 일본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학교시설에 육아시설과 노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학교시설 복합화에 주는 시사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복합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 및 문제에 관하여는 복합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관련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이 부각되고,

육아시설의 경우 사립 보육원 등의 반대가 있었던 점과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이 부족한 점 등으로 진단된다. 또한 지방자치가 교육과 기타로 이원화되어 있어, 건축 및 관리, 재산처분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진단된다. 즉, 학교는 행정적으로 교육청 재산이며 교육감의 관리, 복합화 대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이자 단체장의 관리이므로, 투자 및 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복합화를 위해서는 건축면적이 확보되고 학교건물의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2. 고등교육에서의 지원 과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등교육에서는 창의인재 육성과 더불어 창업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원과제로는 대학 선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혁, 산·학·관·연 협력 및 창업지원 과제로 제시된다(김미란외, 2013; 137-141). 이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육 적격자 선발제도를 개선한다. 선발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재상을 정립하고 대학의 특성화된 새로운 교육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높다. 또한 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중등교육 단계에서





특 | 별 | 기 | 획 | Ⅱ

부터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고교단계에서의 창의인재 육성이 대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고교 포트폴리오와 학생의 출신 배경, 교육경험,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수 중심의 획일적 선발을 지양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창의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창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교육역량을 중심으로 교원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전문영역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역량을 키우고 타문화 및 사회, 인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과목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원을 위한 직업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능력 표준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이 창업지원과 같은 직업과 연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원과 지원인력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며, 교원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기업과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며, 다양한 창업박람회의 개최와 더불어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창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재정 지원 전략이 요구되고, 부처 연계의 펀드를 마련하거나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자료집. 5월 15일~16일.
- 김미란외7인(2013).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창조경제 종합연구 13-01-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영숙(2013a). 교육분야의 협업 행정방안. 창조경제를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6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
- 박영숙(2013b). "초·중등교육에서의 창의인재 양성 동향 및 과제". 창조경제 창의인재 양성의 방향과 과제. 2013년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 자료집. CRM 2013-81-1. pp.69-89.
- 최상덕외 4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연구보고 RR 2011-01.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21세기 핵심역량 :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스킬. Bernie Trilling, Charles Fadel(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학지사.
- 한국교육개발원(2013). 새 정부 교육공약 실천방안.
- 한국교육개발원(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양성의 방향과 과제. 2013년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 CRM 2013-81-1.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2013). 내부 보고자료. 7월.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클
•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I. 들어가며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

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는 학교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며,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 유지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제



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안감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하나로 보고, 그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7월 23일 범정부 협업을 통해 지난 해 대책을 보완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지난 해 2차에 걸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이어 올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7·23 대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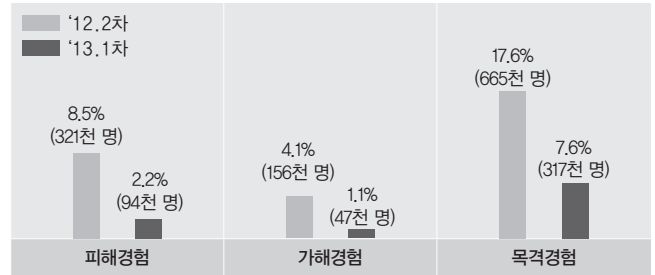
II.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2차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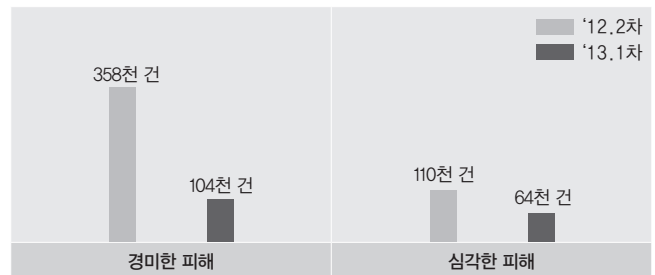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12년 2차	구분	'13년 1차
초4~6, 중·고 전체 학생 (약 514만 명)	대상	초4~6, 중·고 전체 학생 (약 519만 명)
약 379만 명 참여, 참여율 73.7%	참여	약 424만 명 참여, 참여율 81.7%
'12.8.27~'10.12 / 온라인 조사	기간/방법	'13.3.25~4.30 / 온라인 조사

우선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경험률은 8.5%에서 2.2%로, 가해경험률은 4.1%에서 1.1%로, 목격경험률은 17.6%에서 7.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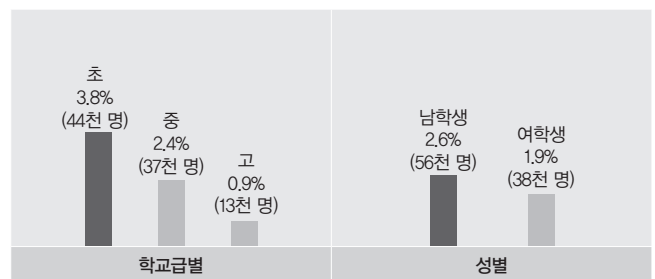


피해건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피해는 358천 건에서 104천 건으로, 심각한 피해는 110천 건에서 64천 건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의 감소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미한 피해 : 빈도(6개월에 1~2회)나 지속정도(1개월 이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
 ※ 심각한 피해 : 빈도(1주일에 1~2회)나 지속정도(4개월 이상)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피해경험 응답률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8%), 중학교(2.4%), 고등학교(0.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2.6%)이 여학생(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언어폭력이 34%로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품갈취나 강제적 심부름과 같이 쉽게 드러나는 유형의 폭력은 크게 감소하고 그 비중도 줄어든 반면, 집단 따돌림, 폭행·감금,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조직화되거나 은밀해 지기 쉬운 유형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그 비중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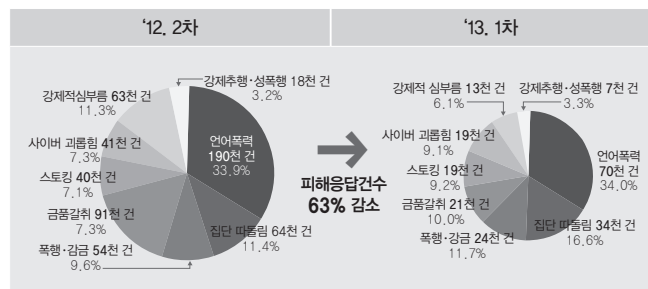
〈 폭력유형별 비중 〉

• 12년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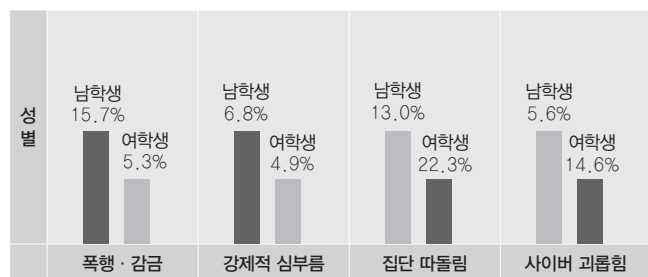
언어폭력(33.9%) > 금품갈취(16.2%) > 집단 따돌림(11.4%) > 강제적 심부름(11.3%) > 폭행·감금(9.6%) > 사이버 괴롭힘(7.3) > 스토킹(7.1%) > 강제추행·성폭행(3.2%)

• 13년 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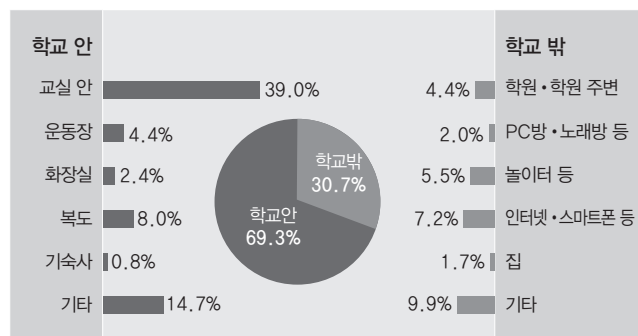
언어폭력(34.0%) > 집단 따돌림(16.6%) > 폭행·감금(11.7%) > 금품갈취(10.0%) > 스토킹(9.2%) > 사이버 괴롭힘(9.1%) > 강제적 심부름(6.1%) > 강제추행·성폭행(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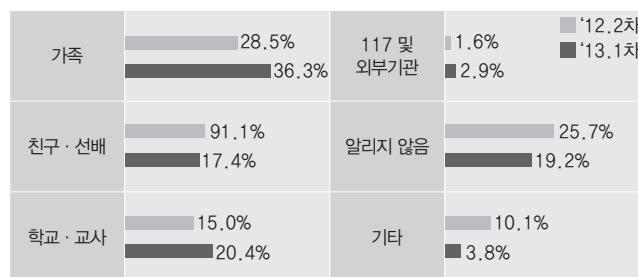
폭행·감금, 강제적 심부름은 남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높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은 여학생의 피해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교실(39.0%), 복도(8.0%), 운동장(4.4%) 등 69.3%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쉬는 시간(42.7%)과 점심시간(10.0%)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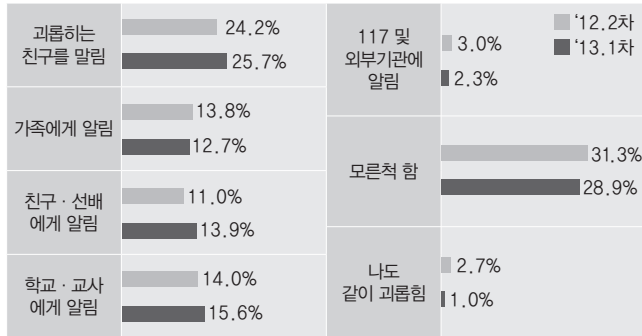


피해학생이 신고했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나, 일이 커지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목적 시 친구를 말리거나, 학교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모른척 했다는 방관자 비중도 28.9%로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급(초등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등 6개 영역에서 기본과정 4시간, 심화과정 6시간 등 모두 10시간 과정으로 구성하여 학급단위로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해결자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원용과 학부모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극, 뮤지컬, 역할극 등 공감형 예방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II.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방활동 등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에 정부는 7월 23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현장, 전문가,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장려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및 적용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 중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이번 2학기에 전국 300

- (문체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유령친구” 공연(12회), 가족초청 공연(3회) 등 실시
-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 (114회, 13만명 관람), 학생·교원 등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고 응답

나.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의 장려 및 어깨동무 학교 육성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이에 7·23 대책은 학교가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는 또래상담(여가부), 또래조정(교육부), 학생자치법정(법무부) 등 중앙정부가 요구한 활동 중심으로 예방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 간의 또래지킴이 활동,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순찰, 학생상담, 위기학생 돌봄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모두 학교정보 공시에 포함하고 교육청 평가

에 반영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 (강원모산초) 매주(월) 아침 조회시간에 자기소개, 가족 소개, 친구소개, 주제발표, 선행사례,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학생들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인천명현중)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수행
- (경기효성고) 애플(사과)데이, 프리허그,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 캠페인활동, 상담 엽서쓰기 등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또래친구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학교 육성사업으로서 어깨동무 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이번 2학기에 1,000개교에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0개교에 300억 원을 지원하여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 숲 치유, 야영,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다.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로 꿈·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 제공

학교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된다면 학교폭력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대전의 범동중학교는 'Dream 클래스'라는 명칭의 대안교실을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명상, 요가, 멘토링, 집단상담, 직업체험, 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 인성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지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대안교실을 이번 2학기에 100개교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모두 10억 원을 지원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를 모든 시·도에서 1개교 이상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공·사립학교는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2. 학교폭력 피해의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우선,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욕설과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해 나가며, 학생, 교원, 학부모, 가족 상호간 사랑·존중·격려의 대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아울러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개교를 운영하고, 우수실천 사례집을 개발, 보급하는 등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작전초)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먼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슬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이 급감
- (울산 태화초) 매주 월요일 등교시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 달기 캠페인으로, 언어폭력과 폭력 충동성이 감소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

따돌림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 및 해소와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성 측정법 등 선별도구와 개입·상담·처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4주 정도의 기간으로 도입, 적용하여 그 결과를 가해학생 조치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안)〉

1단계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2단계	•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교우관계 회복기간’ 부여(4주 내외)
3단계	• 교우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4단계	• 자치위원회 결정 시 그 결과에 따라 감경 처리

또한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학교전담경찰이나 교내 상담인력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폭력서클은 경찰수사 등을 통해 해체·선도 등 엄중 대응해 나가고, 학교전담경찰에게 폭력서클의 단속과 선도 임무를 부과한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등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및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와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2학기에는 학교와

시·도 단위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대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피해학생 지원 강화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지난 7월 11일 전국 단위의 기숙형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가 문을 열었다. 현재 12개소인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범위도 간병급여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학생들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상에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설치,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의 각종 상담·치유·보호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조치하고, 가해학생이 재심 청구한 경우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 학교로 재전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가해학생 전학·퇴학 조치 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종전에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2년간으로 단축하되,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보인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전문상담교사 확충, 내년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2015년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 Wee스쿨 설치 등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꼼꼼하게 마련한다.

4.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엄중조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사안을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한 교직원들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연수 부과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신고접수와 처리단계별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축소·은폐 민원 발생 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단을 통해 점검·지도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급별·유형별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학교장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한다.

5. 학교폭력 신고체제 개선 및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117 신고·상담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 내 처리상황을 점검, 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

하고,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기능도 확충한다.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노인봉사인력 1만명을 배치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며, 취약지역의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를 2학기에 100개교 운영한다.

- (서울 공진중) 학교폭력 발생 우려 장소를 학생들의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변화(샌드백, 인공암벽, 학생 자율 공연장 등)시킴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정서 순화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역발상 적용

〈개선 전〉

〈개선 후〉



학교전담경찰을 올해 1명당 17개교 담당체제에서 내년에는 1명당 10개교 담당체제로 확대·배치하며(고위험학교는 1인당 1~5개교), 학교전담경찰의 성명과 연락 전화번호를 학교구성원에게 공지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에 처하게 된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수서경찰서) 관내 모든 중·고에 전담경찰관 전용 공간인 ‘열린 경찰 상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 확보
- (서울 강동교육지원청) 중·고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및 워크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실시

또한 시·군·구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더욱 확산한다.

뜻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한 마디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교육주체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ㄹ

IV. 나가며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은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top-down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대책은 지난 해의 대책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내용적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및 지역단위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시·도교육청별로 그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일회적이고 집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학교급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7·23 대책은 정부의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7·23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작은 실천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모이고 모여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가해학생이 선도되며 피해학생이 치유된다는 것이었다.

교장·교감 선생님의 관심과 의지,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따



한국교육의 글로벌화, 추진과 전망



글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위상은 예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도국은 물론이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앞다퉀 우리와 교육협력을 맺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고 언급한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외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을 객관적으로 부러워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교육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하되, 장점은 스스로 칭찬하며, 그에 따른 효과도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제교육협력 추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제교육협력 추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① UNESC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협력 ② 저개발국과의 양자협력 ③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먼저 UNESCO를 통해 추진하는 교육협력으로는 아프리카 5개국에 직업기술교육을 지원하는 BEAR Project¹⁾와 아시아 저개발국에 ICT 교육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BEAR Project는 5개년간 1,000만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을 지원하여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등 남아프리카 5개국에 관광, 농업, 건설, 농식품 분야 등 실제 국민생활을 개선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대상 국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 저개발국에 ICT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UNESCO 신탁기금사업은 2003년부터 지원하는 계속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저개발국인 방글라데시, 중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 교원을 대상으로 ICT 역량개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ICT 교육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핸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의 교육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한국을 배우려는 각국의 러브콜 및 세계적인 국제회의의 개최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5월에 APEC 교육장관회의, 2012년 7월에는 HFSP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의 2012 수상자 총회 (Awardees Meeting)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UNESCO 주관의 세계교육회의, 20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교육분야의 국제사회 이니셔티브 확보에 중요

한 국제회의들을 일거에 유치하였다. 특히,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5 세계교육회의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2015년은 국제사회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로, UNESCO를 필두로 국제사회가 진행한 범세계적 기초교육 보급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목표기한인 동시에 유엔 차원에서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기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를 통해 1990년부터 시행해 온 EFA운동을 되돌아보고, 미래 교육 의제와 정책들을 설정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채택될 교육 의제는 이후 MDGs를 계승할 미래개발의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 세계교육회의는 2015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며, 190여 개의 UNESCO 회원국 장관급 이상 대표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대표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교육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이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유치한 만큼 한국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미래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교육강국으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저개발국과의 양자협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원하는 저개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지원하는 협력 형태로, 최근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고등교육 등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의 교육부차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등 ASEAN 국가들과도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UNESCO-UNITWIN Networking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과 UNESCO 한국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교육협력이 있다. UNESCO-UNITWIN을 통한 교육협력

1) 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의 약자로 남아프리카 저개발국에 직업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사업임.

은 전 세계 69개 UNITWIN Networks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관대학으로 인정받은 한동대학교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협력 분야는 국제기업가 정신훈련사업, 지역공동체 개발사업, 그린적정기술 개발·보급사업, 교육인프라 강화사업 등 다양하며, 저개발국의 실생활을 지원하는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의 가나, 말라위, 케냐, 우간다와 아시아의 몽골, 네팔, 라오스 등이 있다. UNESCO 한국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 교육협력은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사업이 대표적이며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각국의 UNESCO 국가위원회와 한국위원회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등 6개 국가이며 주요 사업은 문해 교육을 위한 지역거점교육센터 24개 구축(2013년 계획), 문해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이 단기간에 현대화하였지만 서구화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현대화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교육장관 연합체인 ADEA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콘텐츠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전략적인 교육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아프리카 교육장관 협의체인 ADEA²⁾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규모에 걸맞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II. 교육 ODA 활성화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황에서 독립한 개발도상국 중에서 처음으로 선진공여국 조직인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조위원회(OECD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5년 UNESCO 주관 세계교육회의 및 20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제회의를 연속 유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성과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을 배우면 한국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산업·경제발전이 견인차 역할을 한 교육발전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중요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이래로 개발도상국의 교육협력 요청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과거 협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대륙의 국가들까지 가세했다.

개발도상국 협력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 개발도상국 원조모델 구축 및 수요조사 지원

교육부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를 지원하여 ‘한국형 교육협력모델’을 체계화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발전과정을 양적·질적으로 검토하여 초·중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산업화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교육 ODA 모델을 구축, 영문책자로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다. 이 책자는 유네스코-IIIEP(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국제기획교육원) 연수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교육전문가 연

2)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Education in Africa의 약자로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교육장관과 19개 국가 및 다자기구의 연합체임.



수사업 등에 적극 활용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ODA 사업 수요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고, 조사결과,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균관대학교와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베트남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내 약학대학 설립 동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 자금을 신청하여 현재 약학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EDCF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설립된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및 학교운영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 이러닝 국제개발협력

우리 정부는 한국의 교육정보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구(World Bank, UNESCO 등)와 연계하여 ‘글로벌 ICT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산업부)와 공동으로 ‘이러닝 코리아(이러닝 국제박람회·국제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러닝 정책 및 우수 성과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내 이러닝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러닝 인프라(재구성 PC, 노트북 등)·선도교원 초청연수·교육정보화정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APEC 회원국가의 교육정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매년 2~3개 국가에 한국의 교육정보화 성공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우수 콘텐츠의 보급 및 교원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수원국의 이러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캄보디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력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솔라스쿨(Solar School, 삼성전자 제공)’을 활용하여 아프리카(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3개국) 지역의 문해율 제고 및 교원의 ICT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고등교육 국제화

고등교육분야에서 대표적인 ODA 사업은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대학 학과 구축 및 지역사회 교육을 돕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다.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는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수린 핏수완 ASEAN 사무총장이 아세안 국가 간 교육 및 인적자원 교류의 확대를 위해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것을 우리나라에 건의하였고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세안 국가의 이러닝 여건과 수준이 다양하므로 ASEAN과의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이러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주 협력대학(1개교)에 이러닝 센터를 구축하고 이러닝 콘텐츠 및 교육과정 운영 기술 등을 전수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태국을 시작으로 회원 국가 및 대학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이러닝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2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 4개 대학으로 확대된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수원국의 수요에 맞춰 대학 학과를

개설해 줌으로써 수원국의 대학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포항공대와 부산교대 컨소시엄이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에 신소재공학과를 개설하고 초등학교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는 캄보디아 프놈펜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한국어과, 환경학과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 교육을 하고 있다. 2013년에 신규로 선정된 인재대는 스리랑카 국립간호학교의 교육과정 리모델링 및 교수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남대는 필리핀 엔드룬칼리지에 새마을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Ⅲ. 해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

2008년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통해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2012년 4월 현재 223개국 86,87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에 Study Korea Project(‘05~‘12)의 종료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2012년 ‘Study Korea 2020 Project(‘13~‘20)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수(명)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증가율	-	33.8%	44.5%	51.3%	29.8%	18.6%	10.5%	6.8%	-2.9%

또한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장·단기 장학 혜택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 폴브라이트라

고 할 수 있는 GKS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 한국의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도국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조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친한·지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내 중요한 구성원이 됨에 따라 2009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13.6 5차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관리에 관련된 이행 및 권장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치·선발·입출국을 담당하고 학사 및 생활에 있어 고충을 상담하는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수립(‘11.5)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통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의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정주여건의 개선과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유학생 생활 전주기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2012년부터 유학생이 감소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이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Ⅳ. 해외 우수교육기관 유치 및 교사교류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국경을 초월한 우수 인재를 유치·활용하기 위해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교사의 국제교류를 지원하여 교육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운영

각국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98년 이후, '글로벌 스쿨하우스 프로젝트'에 따라 우수 외국대학 유치 및 국내 대학과의 공동학위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학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올려놓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두바이의 'Knowledge Village' 및 카타르의 'Education City'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도 교육허브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인인 정주여건 개선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에 해외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4곳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등 5개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운영 중이며, 2014년 3월 인천 송도에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타대(미국)·젠트대(벨기에)의 설립심사가 진행 중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러시아 볼쇼이발레아카데미 간 유치협약이 체결되는 등 향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 외국과의 교사교류 사업

우수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사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우수한 교·사대 졸업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교사자격증 취득 및 현지 학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미임용 수학·과학 정

교사 2급 자격증 보유자 및 취득예정자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현지 교사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10개월 간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11년, 2012년 참가자 전원이 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명이 미국 및 국내 국제학교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국학교와 교사교류 지원사업」은 선진국(미국, 영국)과의 상이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상호방문·교환수업 등의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력교사 매칭을 통한 해당 교사 및 소속 학교 간 공동수업의 기획 및 교수활동으로 지속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교사교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11년부터 미국, 영국, 러시아의 초·중·고등학교와 교류를 진행한 이 사업은 2013년도에는 외국교사 36명 및 한국교사 37명이 양국의 학교에 초청되어 교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4년부터 호주와 싱가포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중 교사교류 지원사업」은 국내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원어민 중국어 교사를 초청·활용하여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교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한국어 보급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 내 한류 확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양국 간의 교사교류 합의에 의해 2012년부터 추진되었다. 현재 248명의 원어민 중국어 교사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교사 27명이 중국 내 학교(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사교류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따라 한·중간 교사교류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사업」은 다문화 대상국에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전수하여 대상국의 교육여건을 신장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이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 대상국의 교사를 초청하여 국내 교사와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형 교육협력 ODA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교류 중인 국가는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이며 62명의 한국교사가 다문화 대상국의 학교에서 4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다문화 환경에서의 학생지도능력을 높이고 있고, 대상국의 교사 64명이 한국에 초청되어 다문화이해수업 등을 통해 다문화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V.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최근 G20 및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한류의 영향, 한국의 국격 상승 등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에서는 세계 각국에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한·친한 인사의 육성과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사업

이 사업은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 확대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인재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1997년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Ⅱ)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계기로 1999년부터 미국에 한국어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 이래, 2004년 이후에는 캐나다, 호주 등으로 지원 국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11년도에 23개국으로 지원 국가를 대폭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 799개 한국어반이 개설되고, 이와 더불어 최근 K-Pop 등 한류 붐을 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 및 한국어교원 양성체제 구축

해외에서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채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물질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내 대학에서 전문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우수 자격자를 파견하거

나, 외국 현지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어교원을 공급하는 것도 해외에서의 한국어 보급을 정착시키는데 훨씬 유용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태국 정상회담 및 교육부장관 회담 결과를 통해 2011년부터 매년 60명씩 태국 현지 중등학교에 한국어교사를 파견해오고 있으며, 현지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 양해각서(MOU)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2011년 4월 14일에 체결하였고, 뉴욕주립대와는 2012년 7월 19일에 체결하였으며, 파라과이 국립교원대와는 2012년 12월 20일에 체결한 바 있다.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공신력 있게 평가함으로써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하에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 3종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영역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횟수와 응시지역을 확대하여 왔는 바, 2009년에 시행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국내 시험 2회를 추가하여 4회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6회로 늘릴 계획이다. 응시지역 확대에 있어서도 2011년 51개국 155개 지역에서 2012년 52개국 171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62개국 192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응시자 숫자도 대폭 증가하여, 2010년 92,607명, 2011년 103,909명, 2012년 151,166명이 각각 응시하였고, 2013년 1월 현재 응시 누적 인원이 1,015,01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의 타코마(Tacoma) 교육청과 페더럴웨이(Federalway)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요구(2010년) 및 유학생



인증제 반영(2011년), 성적 유효기간 설정(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2012년) 등 환경적·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졌다. 17년 동안 운영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의 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2014년부터 新한국어능력시험(New-TOPIK)을 시행하기 위해, 문항 틀 제작 및 표준문항 개발,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

재외동포수의 급증에 수반하여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범용 및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현지 언어 및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의 보급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2006년에 러시아어판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을 필두로, 영어판(2010년), 프랑스어 및 베트남어판(2011년), 중국어 및 태국어판(2012년)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였으며, 2013년에는 스페인어, 독일어 및 인도네시아어판 현지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2012년도에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을 통해 95개국 소재 한글학교 등에 576,000여 권의 한국어 교재(교과용도서 포함)를 보급하였으며, 2013년도에 661,000여 권을 보급할 계획이다.

5.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KOSNET) 서비스 확대

국립국제교육원에 구축된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KOSNET : 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1998년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사이트로서, 온라인 한국어 학습 서비스 최초 제공)은 2013년 6월 현재 193,336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한국어 학습사이트로서 높은 인지도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5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과의 통합을 통해, 한국 유학과 한국어 수학을 연계하여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효용성을 높여 왔으며, 재외동포교육용으로 개발된 한국어 학습교재(e-Book), 한국어 강의 동영상 자료, e-러닝 교수학습 자료 등을 탑재하여 한국어 학습기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VI.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발전방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현재 재외동포는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7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해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실현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재외동포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15개국 30개 한국학교에서 약 12,010여 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17개국 39개원의 한국교육원과 1,455개의 한글학교에서 8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매년 증가되는 재외동포 인원에 비교하여 일부 지역은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외동포 교육기관인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에 지원되는 예산도 타 선진국에 비교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적인 편중성과 교사에 대한 파견 체계의 비효율성, 소재국의 특성 반영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우리 국민으로서의 소양과 자부심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한국학교가 외국에서 글로벌(Glocal)형 인재양성의 목표와 재외동포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학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한국학교 소재국의 특징을 잘 살려 다양성과 특성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역사, 사회 등 필수 교과목의 교원만이라도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재외 한국학교에도 학생 진로상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내외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교육원은 현재 17개국 39개 교육원에서 40명의 파견공무원들이 재외동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역사 등 민족교육과 해외에서의 평생교육을 전개하며 각국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 교육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확립과 모국 이해 증진 도모,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채택 추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현지 시행 관리,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내국인 유학생 관리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교육교류의 가교 및 교민사회의 구심점 역할 수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한류 등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져 가면서 현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한국교육원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리더십 및 교육행정경력이 풍부한 교육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며, 일부 국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둘째,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기능과 아울러, 한류, 국제교육교류의 증가에 대응하여 유학생 유치, 소재국 정규 초·중등학교 내 한국어 채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 교육원 운영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매

년 교육원장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넷째,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원을 교육수요의 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교육원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재외교육기관으로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글로벌 인적자원으로의 육성을 담당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국력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VIII. 보다 나은 한국교육의 글로벌화를 꿈꾸며

앞에서 우리 교육의 글로벌화 현주소를 낱알이 살펴보았다. 굵직한 세계대회 유치, 많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교육교류, 저개발국에 대한 ODA 협력,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교사교류, 한국어 보급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 구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강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구체적인 부분을 특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 우리의 교육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글로벌화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진다. ♪





World Education

‘창의성이 경제자원’ 창의인재 만들기 ... 英 · 美 · 佛 · 伊 · EU · 日 사례



글
•
최진숙
파이낸셜뉴스 기자

I. 창의성은 ‘가치창출의 원천’

"인간의 창의성이 궁극적인 경제적 자원이다."

세계는 이 명제를 붙잡고 지금 창조경제, 창조산업에 달려들고 있다. 창의성(Creativity)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창조기업, 창조기술, 창조행정, 창조클러스터, 창조생태계, 창조산업, 창조사회를 이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창조산업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은 나라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 영국·핀란드·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문화유산과 예술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발전했고,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인도네시아·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예술·전통 미디어·뉴미디어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은 모든 나라의 공통사항이다.

창의력은 조기교육을 통해 성장기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평생교육을 통해 생애



지속적인 자극으로 단련될 필요성도 있다. 여기서 확실한 건 창의력도 교육의 중요 대상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Ⅱ. 영국 : 창의성을 중점 교육대상으로 삼고, 공교육에 문화를 접목

창조산업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창의력 교육에도 남달랐던 곳은 영국이다. 영국 문화부와 교육부는 서로 손잡고 2000년대 초반부터 창의성을 중점 교육 대상으로 삼고 공교육에 문화를 접목시켰다. 창의 인재를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포부로 어린이·청소년·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 파트너십'을 진행해왔다.

이 파트너십은 극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단체나 건축가, 과학자, 예술가 등 창의 전문가와 학교를 연계시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한 것 등이 골자다. 추후 영국 공식 기관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한 결과, 파트너십 참여자들은 모든 과제에서 적극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성과에 고무돼 2008년엔 CCE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라는 국가 기관까지 설립, 이곳을 통해 영국 전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2009년 문을 연 창조문화 국립기술아카데미(NSA)는 문화부문 종사자와 산업현장 간 가교역할을 하며 수요맞춤형 교육훈련을 주도했다. 업계 중심 회원제 조직인

NSA는 영국 전역의 200여 개 극장, 20개 대학, 라이브 음악 고용주 등 창조문화업계 네트워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업계에 필요한 표준과 기술 요건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했다. NSA가 운영하는 '스킬 셋(Skill Set)'은 영국 문화콘텐츠 관련 대표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았다. 영화, 비디오 등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훈련·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일 등이 이 프로그램에 속한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영화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BBC, 채널4, 채널5, 채널디스커버리, 영화위원회 등 업계 118개 제작사가 소속된 12개 관련 단체가 뜻을 같이하고 펀드(Skill Set Investment Funds)를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Ⅲ. 미국 : 세계의 창의성 연구·개발·보급·교육의 중추적 역할 담당

미국은 대부분의 부문이 그렇듯, 창의력 양성에 있어서도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많진 않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World Education

지위에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학교와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교육과 체험활동 등 문화감수성 함양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은, 창의력 발달을 위한 건강한 사회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익희 수석연구원은 “대학들은 산업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기업은 대학과 다양한 연구, 조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며 “이런 연구의 바탕으로 최근 미국은 세계의 창의성 연구, 개발, 보급,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대표적인 곳으로 1967년에 설립된 뉴욕주립대 버팔로 대학의 ‘창의적 행동센터’를 들 수 있다. 2004년 ‘국제창의성연구소’로 개칭, 창의성 연구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창의성 석사’ 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수많은 창의성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조지아 대학은 영재 · 창의성 교육학과를 개설해 창의성의 ‘지도 · 연구 ·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키운다.

IV. 프랑스 : ‘지역활동센터’가 창의력 개발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

프랑스는 지자체 단위로 조기교육과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활동센터가 창의력 개발의 전진기지이다. 창의인력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데 주목, 이를 가능케 하는 예술적 창조성, 상상력을 어린 시절부터 저렴하고 손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른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할 수 있게 돕는 기관이 이 곳이다.

지역활동센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에 차등을 두고 학습자가 희망하는 예술활동을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피아노, 드럼, 기타, 바이올린, 성악, 그림, 조각 등 예술의 전 분야를 자유롭게 섭렵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곳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했을 경우 상급학교에 관련분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교육제도를 통해 프랑스는 전 국민의 예술성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지만 민주성, 참여성, 창조성 등을 골고루 함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책임연구원은 “프랑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 기구, 국가와 국민, 인력의 양성과 보호, 정부의 공교육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간 조화가 잘 된 나라”라고 평했다. 이 연구원은 “프랑스의 창의교육은 특정 기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영역 간 조화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조기부터 혜택을 받고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창조성 개발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 프랑스의 인력 양성 철학이라는 것.





V. 이탈리아 : '산업'이 맞춤형 인재 양성 주도

이탈리아는 산업이 주도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로 워크숍을 뜻하는 '파브리카'는 '실습을 통해 배우고 현재에서 미래를 읽는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이탈리아 의류회사 베네통이 1994년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다. 전 세계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겠다는 목표로, 혁신과 국제화를 지향하는 파브리카는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 학습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와 산업의 결합을 도모해 왔다.

파브리카는 25세 미만의 젊은 디자이너에게 미래의 디자인 비전을 심어주고, 이들이 세계의 유망주가 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다. 기술과 지식 위주의 수업이 아닌 체험 실습과 토론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각자 취향에 맞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실현될 수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 하에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파브리카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일정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우수한 교수진들 아래서 시험 압박없이 자유로이 공부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케팅 압박이 없다보니 비즈니스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웠으며, 그러니 창의적인 결과물이 더 많았다. 전형적인 평가 수단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수시로 견해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VI. 유럽연합 : 생애단계별 인재양성계획 통해 창의적 인력 육성

유럽연합은 생애단계별 인재양성계획(Lifelong Learning Programme)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육성해 왔다. 2006년 11월 유럽연합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따라 추진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교류와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코메니우스, 에라스무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룬트비히 등 4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유럽지역 대학 재학생, 교직원, 대학조직을 상대로 한 에라스무스는 학생과 직원들의 유럽지역 내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게 목표였다. 현재 유럽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90%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EU 회원국 내 희망지역에서 3~12개월 연수를 받고 여기서 획득한 학점은 유럽학점교환제도를 통해 소속 기관에서도 인정받는다. 교사, 강사도 같은 시스템의 교육과 혜택을 경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은 기업·고용 활동에 필요한 기술훈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공연예술분야와 관련된 '트레이닝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로, 참여기관들이 학습 과정의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양도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이탈리아 공연예술분야 직업훈련센터 아이다(AIDA) 재단을 주축으로, 독일의 파카우에극장, 프랑스의 문화산업분야 전문 관리·교육센터인 AGECIF, 네덜란드의



World Education

EUnetART, 폴란드의 ICIMSS, 루마니아의 Teatrul Ion Creanga, 영국의 국립극장 교육·훈련부서 등 7개국 7개 기관이 참여해 공동으로 공연예술분야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평가, 기관과 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근무기간 초기와 말기의 역량을 평가하고 여기에 맞춰 직업훈련을 시킨다.

Ⅷ. 일본 : ‘쿨 재팬’·‘도키가와장’ 통해 창의적 인재 길러

일본은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을 상대로 일본의 문화적 매력을 상품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쿨재팬실’이 그 본부다. 일본의 콘텐츠, 문화, 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국내외 홍보 등 정책기획도 맡는다. 최근엔 당초 계획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긴 했지만 확실한 건 일본이 쿨재팬을 주요 성장동력이자 국가전략의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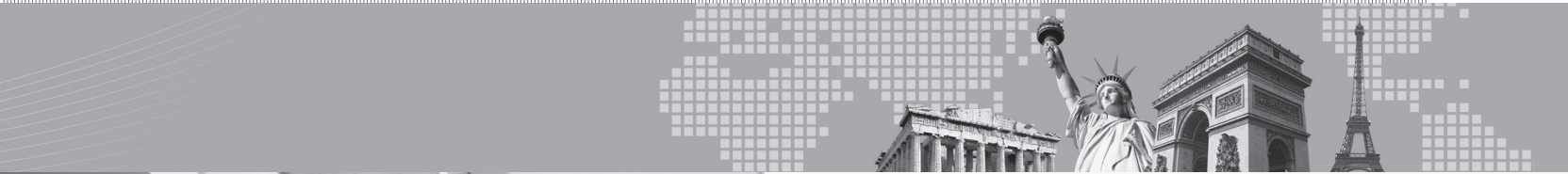
일본은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 현장밀착형 정책을 내놓는다. 대표적인 게 ‘도키가와장(荘)’이다. 1952년부터 1982년까지 도쿄 도시마구에 있었던 아파트 이름으로, ‘철완 아톰’을 그린 데즈카 오사무, ‘도라에몽’을 탄생시킨 후지코 후지오 등 유명 만화가의 신인 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절차탁마한 곳이다. ‘도키가와장’은 만화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 생활을 지원하면서 독립적인 만화가로 데뷔시킨다. 도쿄의 값비싼 임대료가

꽤기만만한 젊은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다.

일본은 차세대 애니메이터를 스튜디오 현장에서 직접 육성하기도 한다. 일본의 TV 방송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1주간 80편 가량 된다. 제작 편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제한된 제작비를 우려한 원가 절감 차원에서 동화, 색채 등 공정을 값싼 임금의 해외기지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애니메이션 기초부문이 취약해지고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육성 보완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력 인재 동반사업이 맥을 같이 한다. 콘텐츠 산업을 이끌 젊은 인재와 창조 분야 전문가를 매칭해 장기간 창의숙성 멘토링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창의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거장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도제식 창의 숙성과정을 밟으면서 제작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체험하고 월급도 받는다. ♪





EU 대학생 교환 '에라스무스' 300만 돌파... 현황 · 성과 · 과제 · 전망¹⁾

클
·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정책적 의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은 EU(유럽연합) 국가 간
고등교육의 교류협력을 위해 유럽 11개 국가 3,244명의 젊

은 대학생들의 참여로 198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리고 마침내 2013년 7월에 참가 인원이 300만 명에 도달하면
서 2013년까지 300만 명의 참가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목
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²⁾ 초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 이 글은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확대 및 정교화 방안연구(반기용 외, 2013)'에 포함된 필자의 원고를 요약, 수정한 것임.

2)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erasmus_en.htm 참조



World Education

다른 EU 국가의 대학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장 중시하였고, 해당 국가의 학교에서 수강한 수업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유럽학점교류제도(ECTS)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5년 동안 27개의 EU 국가들과,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리히텐슈타인 6개국을 포함한 총 33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서 유럽 통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EU 내 대학생과 교원들의 국제교류를 크게 활성화시킴으로써 유럽 고등교육의 개혁을 추동하고, 유럽 공동체의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II.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역사적 진화과정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그동안 크게 6단계로 진화하였다. 1981년에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2014년도에 개편 예

정인 '모두를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all)'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와 초점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파일럿 단계 (1981~1986)

1980년대 유럽에서는 EU 내 이동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역시 유럽 내 학생들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으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초기 목적은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학생의 최소 10%가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Kelo et al., 2006).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서는 6년 동안 교환학생 준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회원 국가들 간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가면서, 1987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2.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1987~1994)

초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987년부터 4년간 진행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으나, 5년 프로그램으로 연장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고등교육 학생들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회원 국가의 경제 및 사회를 직접 경험해 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 계획을 가장 중시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수업과정이 다른 수업과정에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경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과 연동될 수 있도록 유럽학점교류제도(the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이하 ECTS)를 만들었다.

3. 소크라테스 I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단계 (1995~1999)

EU 국가 간 교육·훈련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는 다섯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그 중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고등교육 분야의 에라스무스와 중등교육 분야의 코메니우스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되면서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예산의 55%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운영에 사용될 정도로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학생 교류와 고등교육 기관들 사이의 협조가 크게 증가하였고, 학생 교류는 물론 교원 교류의 제고, 커리큘럼 혁신 등을 통해 유럽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4. 소크라테스 II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단계 (2000~2006)

1990년대 후반부터 강조된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EU에서는 2000년부터 유럽 시민이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직업훈련, 연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³⁾ 그 결과 소크라테스 II 프로그램에 속하게 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지식기반사회 시민의 능력을 기르기 위한 언어 학습과 ICT 활용에 중점을 두었고, 유럽 고등교육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폭 넓은 교원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위 과정이 실시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EU 외의 국가들로 확대한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를 통한 공동 학위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5.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단계 (2007~2013)

이 시기 EU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요 화두는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의 실현으로서, 이를 위해 기존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그 일부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거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인턴십이나 연수 등 현장실습(work placement)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3)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other/c11040_en.htm 참조



World Education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기업체와 학계가 연계하여 상호 도움이 될 다양한 활동(강의, 연수나 직업훈련, 산학협동 프로젝트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그리하여 기업체, 직업연수센터, 연구센터 등 산업계 기관들이 주최한 학생들의 해외 현장실습, 기업 직원들의 해외 강의 활동, 고등교육 교원들의 해외 직업훈련 및 연수 활동, 산학 협력을 위한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⁴⁾

6. 모두를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all) 프로그램 단계 (2014~2020)

2011년 11월 23일 EC는 새로운 EU 프로그램인 “모두를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all)”를 발표하였고, 그동안 27개 회원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의회에서 새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모두를 위한 에라스무스”는 현재 EU와 전 세계의 교육, 학습, 청소년,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통합하고자 한다. 7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더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되거나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014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에라스무스”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의 재능과 취업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현대화 및 학습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Ⅲ.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적 성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등 많은 교육기관들이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 연구의 질, 그리고 학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인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ECTS로 평가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평가체계가 현대화되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공동학위과정(예를 들어, 인권과 인종대량 학살(genocide)을 연구하는 석사과정)이 개발되었으며, 전공 주제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졌다.

둘째, 교육, 연구, 학생서비스 부분 외에도 기관의 경영 부분

4) http://ec.europa.eu/education/erasmus/erasmus-for-enterprises_en.htm 참조



등에서 국제적 발전을 유도하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시스템 및 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국제적 도약을 개발하게 되었다. 셋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경험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외에서 보낸 시기가 학생의 학업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삶을 풍부하게 할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서로 다른 문화 간에서 생활하는 능력, 자립심 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고용주들이 해외 경험을 가치 있게 고려함에 따라 참가 학생들의 취직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주체가 학과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바뀌면서, 통합적 운영과 기관 리더십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데 비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져 기안을 하고 확정되는 데 드는 시간이 너무 길며, 재정지원의 신청과 수락의 과정 역시 긴 시간이 걸려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지적되었다(Teichler et al., 2000). 또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학점 인정이었고, 학점이나 성적을 계산할 때의 문제, 행정적 이슈들, 교수들의 태도,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Huang et al., 2010).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 기관 사이에 각 학교에서 학점이수가 인정되는 수업들을 미리 확실히 지정하는 등 구속력이 있는 상호 협정이 필요하다. 2) 학점 시스템의 경우 ECTS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해당 학교가 ECTS가 아닌 다른 학점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ECTS 학점으로는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3)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대학에서는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표, 강의계획서 등 해당 대학에서 수강 시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4) 학생의 자국 대학 교수들에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학점인정제도 등에 대해 미리 교육을 하여, 학점인정 등에 대해 학생 개인이 교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협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V.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현재 파일럿 단계에 있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다자간 대학생 교류사업)이 현재의 시범사업 단계에서 본사업 단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진화과정을 캠퍼스 아시아의 관점에서 분석해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선 시범사업단계(2012~2015)와 이후 본 단계를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World Education

통해 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중·일 3국의 정부 대표와 사업 참가 기관 대표들이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규칙, 운용방식, 성과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면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3국 모두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단계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 아시아 기금”(가칭) 마련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수·공동 학위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3국 간의 커리큘럼 통합 및 혁신을 중심으로 한 학생 및 교원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커리큘럼의 혁신과 교원의 교류는 캠퍼스 아시아에 참가하지 않은 자국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커리큘럼의 혁신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전을 적극 지원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복수·공동 학위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국 대학 간 학점교류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통일된 학점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는 각 대학의 학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학점제도와 같이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점제도를 만들어 학점 시스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아시아 협정서(Asian Policy Statement, 이하 APS)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업 운영 사무국이 제시한 공통 협정서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 관리 및 예산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류 활동이 가능한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상호 경험을 나누고, 참가를 희망하거나 새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멘토링 등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 개인 등이 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된 이미지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상덕 외(2009). 아시아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 : Campus Asia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변기용 외(2013).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확대 및 정교화 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European Commission(EC) (2012). Erasmus : Changing lives, opening minds for 25 years. EC.
- Huang, L., Kalmic, I., Pisera, J., Trawinska, J., and Vinda, E. (2010) Problems of Recognition in Making Erasmus. ESN.
- Kelo, M., Teichler, U., & Wächter, B. (2006). Student mobility in European higher education, Lemmens Verlags & Mediengesellschaft.
- Teichler, U., Gordon, J., Maiworm, F. (2000). Socrates 2000 evaluation study. EC.
-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erasmus_en.htm
-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other/c11040_en.htm
- http://ec.europa.eu/education/erasmus/erasmus-for-enterprises_en.htm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 적성·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교교육으로 인재 양성

클
·
정현숙
작가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광주 MBC 기자로 일하던 중, 1998년 남편이 네덜란드 대학 석·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네덜란드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풍차와 튜립의 나라,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 한국의 경상남·북도 만한 작은 면적...네덜란드에 대한 막연한 지식만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학교정보

는 하나도 모른 채 떠나게 되었다.

유학 갈 당시 우리 아이들은 각각 일곱 살, 여섯 살이어서 인근 초등학교에 보냈다. 다행히 유치원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둘째도 형과 같이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 간지 몇 개월이 지나도 아이들이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오면 두 아들들은 동네 또래 아이들과 노느라 밥 먹는 시간도 잊을 정도였다. 내심 아이들이 학교공부를 잘



World Education

따라가는지 걱정되었지만, 학교에서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교성적은 물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는 지를 배치된 책이나 내 아이가 직접 쓴 노트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아이들 공부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네덜란드 초등학교 아이들은 책을 집에 가져오지 않는다. 공부하는 학교에서만 하면 될 뿐, 예습, 복습을 할 필요도 없다. 방과 후에는 마음껏 놀거나 음악, 축구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두 아이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3시 쯤이면 학교수업이 끝났다. 사교육을 받을 장소도 없고 할 필요가 없으니 큰 아이는 집에 오기만 하면 전자기타에 빠져 2시간 이상 기타를 치는데 열중했고, 둘째는 친구들과 테니스를 치거나 축구를 하러 가곤 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학교 끝나면 모두가 자유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누릴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실컷 놀다가도 자신이 해야 할 공부나 과제가 있으면 유급 당하지 않기 위해 어느 새 자기 방에 들어가 혼자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아이들은 그 곳에서 자라면서 한국에서의 그 흔한 보습학원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었고 자율학습도 해본 적이 없었다. 중고등학교 입학은 초등학교 성적과 졸업시험(CITO) 성적을 토대로 어느 학교로 진학할 지가 정해지는데,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15-20%에 불과하다. 즉 10명의 학생 중 한 두명만이 인문계로 가고, 나머지 80% 학생들은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나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아이들은 13-14살 청소년기에 벌써 어느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장래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전문대로 진학하게 될 지 그 길이 대부분 정해지는 셈이다. 네덜란드

청소년들 중 순수한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 진학률은 20% 미만이다.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도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대학 진학률이 전체 학생의 2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걱정은 거의 없다. 대학졸업생 자체가 많지 않아 대부분 1-2년 안에 취업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대학 졸업이다. 네덜란드는 대학 입학의 문은 넓게 열렸지만 졸업은 아주 어렵다. 네덜란드 교육은 초등학교생들에게는 마음껏 놀게 하지만, 중·고등학교부터는 어느 학교로 가느냐에 따라 공부를 많이 할지, 실무 직업능력을 쌓을지 정해지며 대학에 다니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으로 장래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주 목적이다.

네덜란드 학생들은 누구나 대학에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정말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머리를 많이 써서 일하고 싶으면 많이 배우는 길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의 길을 택해 그것에 따른 실무능력을 익히고 자격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냐고 물어보면 ‘zelfstandig’ 해야한다고 대답하곤 한다. 이
말은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잔소리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없
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자신이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무시 당하는 것 같으며
정색을 하곤 했다.

지금 큰 아이는 네덜란드 라이든(Leiden)대학 법학과를
졸업, 국가 법률사무소(juridisch advise bureau) 인턴사원
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에 재학 중
이며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늦둥이 딸은 서울에서 중학교 2학
년에 다닌다. 딸 아이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교육에 충실
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지켜보는 중이다.

네덜란드 학교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철저하게 신뢰받는다.
여기에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부모들, 온종일 뛰어놀며 자라
는 어린이들, 진지하게 직업을 고민하며 장래를 준비하는 청
소년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줄 아는 학생들, 대
학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네덜란드 초·중·고, 대학 교육의 장점을 소개하고 한국교
육에 적용했으면 하는 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초등학교 : 학교는 즐거운 곳

네덜란드 아이들은 만 4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과정 2년(Groep1,2)이 초등학교에 포함되어 있어, 초
등학교 과정이 모두 8년인 셈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비

용이 전혀 들지 않는 데다, 공교육으로 유아교육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유치원과정 교육은 사회생활의 기초교육 위주로 진
행되며 글자를 배우거나 숫자를 익히는 교육은 groep3, 즉
초등학교 1학년과정으로 미룬다.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양보와 협동, 나눔을 배
우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리포트, 즉 성적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친구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유치원아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유급을 적용, 1년을
더 다니게 한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유급을 적용하는
것은 이 교육과정이 학교생활의 첫 장이자 사회생활에 첫발
을 내딛는 과정이라 보고 그 기초를 확실히 다잡기 위해서다.

유아교육 1, 2년 과정이 끝나면 초등학교 1학년(groep3)으
로 올라가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학교 공부가 이루어진
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이 없다. 책을 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교과서는 학교에서만 봐야 한다. 교과서가 없
니 아이들은 예습은 물론 복습도 할 수 없다. 초등학교 공부
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것을 해야 한다고 교사들은 말하곤 한다.

학생에 대한 공부평가는 수업시간 쪽지시험 등을 통해 이
루어지며 1년에 4차례 성적표(report)를 받게 된다. 학교는
성적표를 아이들에게 집으로 보내기 전 반드시 먼저 학부모와
10분 면담을 갖는다. 교사와 학부모 면담은 밤에 이루어진다.
필자도 아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이들
이 공부를 따라가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교사와의 면담
에 가서 아이가 쓴 책이나 노트, 그리고 쪽지시험을 보고서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면담자리에



World Education

는 이혼한 부부들까지 함께 올 만큼 대다수 학부모가 반드시 참석한다. 네덜란드에서 교사와 학부모 10분 면담은 아주 중요한 만남으로 거의 대다수 학부모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학기 말이면 유급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성적이 학년 말 평균 6.0 이하이거나 학교에서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엄격하게 유급을 적용, 같은 학년을 한 번 더 다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 초등교육은 수준별 교육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부 잘 하는 아이는 한 학년을 건너 뛰어 월반이 가능하며, 학습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플러스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고, 과목별 이동수업도 가능하며,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턴교사가 배치되어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스템이다.



초등교육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유급을 도입, 한 학년을 더 다니게 함으로써 기초교육을 확실히 잡고 한 학년을 올라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같은 학년에서 두 번 유급을 한 경우

는 보통학교에서 배우기 어렵다고 판단, 특수학교에서 느리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입학에 위한 시토(CITO)시험을 본다. 국가에서 치르는 이 시험은 언어, 수리, 지능 등 여러 분야에 학생의 지적능력을 상세하게 평가하므로, 학생이 앞으로 어떤 중·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좋은지 그 결과가 나온다. 각 학교는 이 시험결과와 8년 동안 학교에서의 성적을 토대로 학생의 진로를 학부모와 상담해 결정하게 되는데,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은 15~20%,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 25~40%, 중하위 직업중고등학교 50~60% 학생이 진학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6학년에 벌써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어 어느 길로 나아갈 지 미리 알게 되는 것이 우리와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Ⅲ. 중 · 고등학교 : 미래의 일자리 준비하는 곳

네덜란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하나로 합해져 있다. 인문계 중·고등학교(VWO)는 6년제이며,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HAVO)는 5년제,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MAVO)는 4년제이다. 즉 학생이 어떤 중·고등학교로 가느냐에 따라 6년을 다니거나 4년을 다니게 된다.

이처럼 공부하는 기간도 차이가 나지만, 공부하는 과정도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인문계 중·고등학생들은, 장래에 대학 진학이 목표인 만큼 언어만 해도 영어와 프랑스 독일어는 필수인 데다 여기에 고전어인 라틴어 히브리어 헬



라어는 물론 스페인어까지 배우는 학교도 있다. 반면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영어는 필수이지만 프랑스어와 독일어 까지만 배운다.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상위 15% 안에 들 만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지만, 5개가 넘는 언어과목은 물론 수학이나, 물리, 화학 세계사 등 공부할 과목이 많아서 대충 공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유급 당하기 쉽다. 실제로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각 학년마다 유급 당하는 학생이 20%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다. 그만큼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같은 학년에서 두 번 유급을 당하게 되면 한 단계 낮은 학교인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로 가야 한다.

실제로 우리 둘째아들 친구는 인문계 중·고로 진학했으나 공부를 게을리 하여,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로 갔다가 다시 중하위 직업학교로 까지 전학 간 학생도 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유급이 더 엄하게 적용된다. 반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 또한 얼마든지 한 단계 높은 학교로 갈 수 있다.

즉 모든 학교들이 서로 열려 있어 공부를 잘하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유급 당해 내려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중하위 직업 중고에 다닌다 할지라도, 학년말 성적이 평균성적인 8.0을 넘으면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수준이 높은 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 학년 낮추어 가도록 하고 있다.

인문계 중·고등학생들은 3학년 말(중학교 3학년-klass3)이면 대학에 가서 어떤 분야를 공부할 지를 생각해 프로필을

정하게 된다. 이 프로필은 크게 문과는 C&M(문화와 정치), E&M(경제와 경영), 이과는 N&G(자연과 건강), N&T(자연과 기술)분야로 나뉜다. 즉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프로필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게 된다. 문화와 정치분야를 선택한 학생들은 언어와 정치 세계사 등의 과목을 더 깊이 공부하는 반면 수학이나 과학, 물리 등의 어려운 과목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반면 자연과 건강분야를 택한 학생들은 수학이나 생물, 물리, 화학 등을 더 많이 공부하는 대신에 언어과목은 영어 필수과목만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학생들은 같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떤 프로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부하는 범위도 다르며 졸업시험을 준비하는 과목도 서로 차이가 난다.

상위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배우는 과목이 인문계 학생들과 비슷하지만 5년 과정이어서 배우는 과정이 느리며, 언어도 고전어는 배우지 않는다. 이들 학생들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똑같은 프로필을 선택하는데 이들은 학문 위주의 대학이 아닌 실무 중심 대학(HBO)을 목표로 공부하게 된다.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생들은 4년 과정이므로 2학년 말에 프로필을 선택하게 된다.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는 그 안에서도 이론중심(TL)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비롯해 이론과 실무 결합(GL), 기술직업과정(KBL), 단순직업과정(BBL)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즉 학생의 아이큐나 손기술능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이들 학생들은 프로필이 기술 - 경영, 요양 - 복지, 농축산업 등 크게 구분되며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진다.



World Education

직업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중·하위 직업 전문대(MBO)로 진학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공부했느냐에 따라 전문대 진학의 방향도 수준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과정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장래에 공부할 분야나 직업세계로 나아갈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그 목표를 향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처럼 수능점수가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 대학에 가는 시스템은 네덜란드 교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일 것이다.

네덜란드 중·고등학교들은 학년마다 4번의 시험을 치르는데, 학부모에게 성적표와 함께 과목교사 면담신청서가 따라온다. 학부모는 3명까지 과목 교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아이가 성적이 부진한 과목 교사를 만날 수도 있고, 멘토를 만나 상담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면담이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담임인 멘토를 비롯해 각 과목 교사와 면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부진한 과목 교사와 만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자세히 물을 수 있다. 과목 교사 면담은 1년에 4번이나 이루어진다. 한 번에 3명의 교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12명까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학, 화학, 물리 국어 교사 등을 만나 아이가 성적이 부진한 이유와 성적올리기 비법을 자세히 물어보곤 했다.

중·고등학생들은 졸업반이 되면 각자 국가에서 주관한 졸업시험(Eindexamen)을 봐야 한다. 졸업시험 합격증만 있으면 대학은 물론 상·중·하 직업 전문대 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졸업시험 합격률은 거의 85%~90%에 이른다.

네덜란드 교육부는 또한 졸업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1년 동안 학교에 더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하면 한 두 과목 시험점수가 낮아 떨어진 학생들은 그 과목만 따로 더 공부해 다음 해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등 탈락자 구제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즉 뒤쳐진 학생들까지도 다 자격증을 받아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준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합격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이 네덜란드 교육의 강점으로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IV. 대학 :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힘든 곳

네덜란드 대학(WO) 입학은 인문계중·고 졸업시험 합격증만 있으면 진학이 아주 쉽다. 상·중·하 직업 전문대도 마찬가지다.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나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의예과나 법학과를 비롯해 물리치료학과 등 학생이 많이 몰리





는 학과의 경우,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인기학과는 예외다. 그러나 정말 의대나 법학과를 가길 원하는 학생들은 추첨에 떨어졌어도 내년에 다시 졸업시험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세 번 시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네덜란드 대학 진학은 각 과마다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필을 공부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예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N&G(자연과 건강)분야를 공부했어야 가능하다. 네덜란드 대학은 1학년 신입생이 이수할 학점이 60학점이며 학사과정은 모두 1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신입생이 60학점을 다 이수하는 학생은 전체의 20%도 채 안 될만큼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60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학생에게 특별한 자격증을 부여한다. 바로 Propedeuse Diploma(프로페디우스 자격증)으로 일명 'P' 자격증으로 불린다. 이 "P" 자격증은 학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로부터 학문 연구의 자질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60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이 너무 적어 42학점만 이수하면 일단 유급은 면하고 2학년에 올라가게 한다. 그러나 의학과나 법학과 등 일부 학과는 1학년에 42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낙제시켜 3년 내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다니지 못하게 할 만큼 아주 엄한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대학은 이수할 학점이 적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생은 자유가 많지만 공부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 1학년에 42학점만 따면 나머지 18학점을 2학년에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수할 학점이 많아져, 졸업은 언제 할지 아무로 모른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언제 졸업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금기 시되는 질문일 정도다. 하지만 네덜란드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얻게 되면, 대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 후 1~2년 안에 취업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모두 국립대학으로 14개가 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유학하려는 학생들이 필자에게 대학의 서열에 대해 자꾸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네덜란드 대학은 서열이 없다. 다만, 어떤 대학의 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있다. 예를 들어 공과대는 델프트(delft) 공대, 문학과와 법학과는 라이든(leiden) 대학, 심리학과는 흐로닝엔(Gronigen)대학 등이다.

또한 같은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치중해 더 연구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공부할 것인지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뿐이다.

V. 교육비 : 사교육비 부담 없다

네덜란드에서 세 자녀를 키운 필자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초, 중고등학교가 무료인 데다, 사교육을 따로 시킬 일이 없으니 그저 아이들을 돈도 없이 교육시킨 덕을 톡톡히 누렸다. 또한 아빠가 유학생으로 소득이 없으니,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예능교육이나 스포츠 등도 정부 보조를 받아, 조금만 내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큰 아이는 피아노, 둘째는 키보드, 셋째는 바이올린을 시킬 수 있었고, 축구나 수영, 테니스까지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를 줄 수 있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17세까지



World Education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 늦둥이 딸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양육비를 받게 된 데다, 두 오빠들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양육비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100만 원이 넘었다. 유학생인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다. 네덜란드는 대학공부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대학 학비가 1년에 1,700유로,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학비도 학생의 형편에 따라 10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국가에서 학생이면 누구나 저리로 빌려준다. 어디 그 뿐인가. 대학생들에게는 매달 가정의 상황에 따라 공부 지원비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4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버스나 기차 등 교통수단의 이용도 공짜다. 국가에서 발급받는 교통카드(OV)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돈이 없어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했다거나 배우지 못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와의 만남시간은 거의 모든 학부모가 줄을 서서 기다려 만날 만큼 학부모는 교사를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학교는 학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녀들의 적성을 살려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이 사회의 일꾼을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둔다. 그런데 한국은 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해도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턴가 학교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교육이 신뢰를 받으려면 네덜란드처럼 학생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정확하고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네덜란드처럼 유급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요즘은 학생 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학생의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중학교 13, 14살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적성을 찾아 자신의 길을 개발, 그 분야를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교육시스템을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Ⅵ. 한국교육에 적용 가능한 것

네덜란드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학교교육이 학부모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는 점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가 학생을 제일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유급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사와의 면담시간을 생뚱처럼 소중히 여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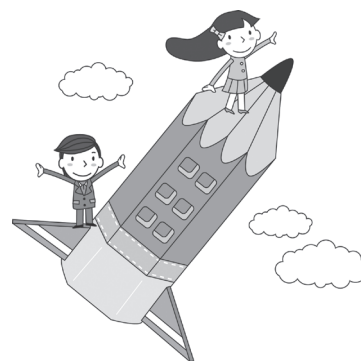


한국은 중학교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이 다르다.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학부모는 물론 학생이 인식하고 공부보다는 기술이나 자신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아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다. 모든 학생에게 대학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 정말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만 대학을 간다. 현재 한국교육은 너무 대학입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은 대학생이 너무 많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가 너무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 경쟁이 사교육시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처럼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공부하는 등급이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똑같은 공부를 모두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과 적성은 모두가 다르다. 이제 학교교육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인력을 일찍부터 준비시켜 주는 교육으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학생의 능력을 살린 맞춤형 네덜란드 교육이 하루 속히 한국에도 자리잡아, 학교가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교육 한국'이라는 말이 뿌리 내리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문헌, 약어 요약

- 중학교 입학에 위한 초등학교 졸업시험-CITO(Centraal Instituut voor Toets Ontwikkeling)
- 네덜란드 학제, 약어 -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p70, 71 참조
- 초등학교 교육 소개 -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p122 인터뷰 요한 본 싱크 (네덜란드 캠페인 초등학교 교장)
- 네덜란드 인문계 중고등학교 정보 - p128~130
-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 직업과정 -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p146, p147, p148 참조
- 네덜란드 대학 정보 - p192, 193참조





World Education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초·중·고교 정규과목에 한국어 채택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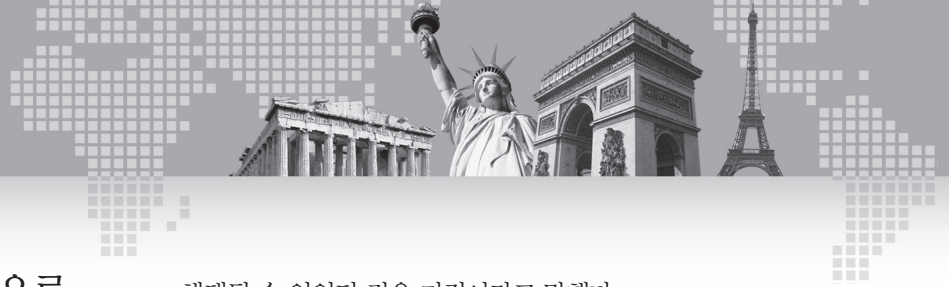
김윤기

교육부 교육연구원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브라질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로 둘러싸여 있는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남미의 심장으로 불린다. 인구는 약 650만 명에 이르며, 수도는 아순시온이다. ‘여러 색깔의 강 (Para는 여러 색깔, Gua는 ~의, Y는 물·강·호수를 의미)’¹⁾이란 뜻을 지닌 ‘파라과이(República del Paraguay)’ 국호처럼 한국어가 강물처럼 파라과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1) 파라과이에 대한 어원은 그 외에도 ‘바다의 기원이 되는 강’, ‘위대한 강으로부터’ 등 다양하다.



I. 남미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과 파라과이는 1962년 수교를 맺었으니, 올해로 반세기가 넘었다. 남미의 최초 수교 국가인 파라과이는 이민자 역시 남미 최초로 받아들이며서 지금까지 중남미 이민의 교두보가 되었다. 1965년 첫 이민자가 파라과이에 발을 딛은 이래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한인이 수도 아순시온을 중심으로 사업과 농업, 방송계, 전문직종 등에 진출해 있다. 우리와 지구 정반대에 위치하기에 비행기로 30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낮은 세율(법인세 10%)과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남미의 풍부한 자원과 황금 시장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과 한인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파라과이는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몇 년 전부터 한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파라과이에서 한국어 사업은 차분하게 진행되어 왔다.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드디어 작년(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 6개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었다.(5개교 비정규 과목, 총 11개교 채택)

이는 파라과이 교육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한국어를 비정규 특별활동 과목으로 시범운영한 지 4년만의 쾌거다. 파라과이의 낮은 수업시수(주당 20시간)와 스페인어 및 파라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이 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그 동안 파라과이에서 영어나 한국어 등 외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파라과이 한국교육원(김대관 원장)은 6개교에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 초·중·고등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수업에 주 5일 수업을 한다.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부담은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비교적 낮은 교육열과 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교실과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교원의 낮은 급여수준(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교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아서 모든 학교는 국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국립 학교 학생의 성적부까지도 교육문화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와 일부 국립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2007년 전전임 이상승 원장(2005~2007)이 한국어 교재를 교육문화부 인정도서로 개발하면서 초석을 놓았다면, 전임 남현우 원장(2008~2010)은 5개의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비정규 특별활동으로 3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여건을 조성하였다.





World Education

그리고 2011년 부임한 김대관 원장은 전임 두 원장의 역점사업을 이어받아 부임과 동시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국립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명문학교를 지향하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외국어를 적극 채택하고, 수업시수를 늘리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국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립학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쉽고 편한 국립학교 대신 명문 사립학교와의 접촉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다.

주변 상황도 좋았다. 마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파라과도 K-POP, 한국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정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 K-POP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은 일선 학교가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데 학부모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2012년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Colegio Cristiano Sudamericano, Colegio Técnico Cnaan, Escuela Cristiana Americana, Escuela Jardin de Dios, Escuela Cristian Bethel, Colegio San Pablo 등 6개교이다.

미리암(52, Miriam Fleitas Guirlan, Franco 국립학교 교장)씨는 “4년 동안 한국어를 특별활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봅니다. 한국어 수업을 꾸준히 모니터한 결과, 외국어 공부가 문법과 회화를 익히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의 문화권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도로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학부모 미르타(44, Mirtha Elizabeth Alderete de Vera)씨도 “아들이 매사에 소극적인데 학교에서 한국어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또 수료증까지 받아왔더라구요. 또 어느 날은 한국 요리를 배웠으면서 가방에서 불고기를 꺼내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국식당을 자주 찾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어요.”라며 한국어를 통해 아이가 긍정적이 되었다며 기뻐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학생 클라우디아(16, Claudia Magali Struvay)는 “한국어를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저는 동양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수업이 항상 재미있어요. 수업시간에 한국 요리를 배워 집에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엄마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요즘은 K-POP 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즐겁고,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라며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고 나아가 한국 방문으로 이어가고 싶은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II. 기적을 일상으로 만든다 ... 중남미 지역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개설

라울페냐 국립교원대학교(Instituto Superior de Educación Dr. Raúl Peña, 이하 ISE)에 한국어교육과가 개설되어 2013년 3월 입학식이 열렸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위치한 ISE는 교직원 500명에 1,73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사 양성과정은 80년대부터 개설된 영어에 이어 한국어가 두 번째다. ISE는 Pregrado 과정과 Grado 과정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Pregrado 과정은 6학기(유아교육, 초등교육, 수학, 예술, 국어 및 문학, 외국어-영어, 사회학-지리 및 역사포함, 과학-화학, 생물, 물리, 기업경영 및 회계)를 기본으로 하는 9개 학과가 있고 이와 별도로 특별과정의 경우 3학기(비교과과정으로 유아교육, 이중언어교육, 특수교육, 평가관리, 학습상담, 학교경영 등)로 구성되어 있다. Pregrado 과정을 이수하면 교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교직 근무 중에 Grado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Grado 과정은 8학기의 학사과정과 논문 1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육, 스페인어문학, 수학, 외국어-영어 또는 한국어, 사회학, 과학, 예술 과정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선 8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사실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에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학과가 개설된 것은 우리의 높은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최근 파라과이에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파라과이 교원의 처우가 낮다보니 한국어교사로 활동 가능한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교직에 진출할 의사가 없는 형편이었다. 한국어

교원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신입생 15명에 청강생 1명으로 출발한 한국어교육과는 향후 파라과이 내 한국어 채택 초·중·고의 안정적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 및 유럽의 스페인어권 국가의 한국어 교원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 ISE와 MOU를 맺은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김대관 원장은 이번 학과개설로 인해 스페인어권 사용국가에 대한 현지 한국어 교원 공급이 안정되었다며 물심양면으로 힘을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등에 고마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장학금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준 파라과이 한인회장님과 교민들의 노고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ISE 한국어교육과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교수요원이 파견되었으며, 학생들은 졸업인증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한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학 이론에서부터 스페인어와 과리니어, ICT를 학습하는 교직원공통, 교직 실습 그리고 48%를 차지하는 전공수업에선 한국어 기초, 한국어학개론, 한국문학,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 등 한국어교원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올해 한글날이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글의 위대성과 편리함에 고개 숙일 것이다. 앞으로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



World Education

Ⅲ. 공공외교의 첨병 한국교육원 ...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지원까지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1980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채택 사업 외에 교육원 직영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 강좌, 한글학교 지원, 유학생 유치활동, 파라과이 공무원 대상 한국어 출장 강좌, 한-파 교육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독자적인 강의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직영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1~6, 한국어 문법,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준비과정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현재 한국어 수강생은 280명(2011년 초 100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와 있다. 수강생의 연령은 7세부터 50대까지 다양하지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연령이 가장 많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펠릭스(18, Félix José Melgarejo Patiño, 2012년 3월 한국 유학 예정)는 “한국어가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후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파라과이를 대표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뿌듯합니다.”라며 교육원 강좌를 들은 것이 본인에게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K-POP 동호회는 각종 문화행사와 발표회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파라과이 독립 200주년 행사, 대사관 주요 행사 등에 현지인 수강생이 K-POP 전시회, 커버댄스, 노래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현지 Paravisión TV 방송사가 K-POP 스페셜 특집 제작을 요청하여 다수의 한국어 수강생이 출연하는 등 한국문화 전파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사미라(20, Samira Britez, 아순시온국립대 심리학과 재학)씨는 “K-POP을 듣고 나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파라과이의 많은 사람들에게 K-POP을 소개하고 싶어서 Paravisión TV에 편지를 보냈고, 30명의 교육원 학생들과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도중에 방청객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담당 PD가 방송분량을 20분에서 90분으로 늘려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이 방송을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보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었다는 겁니다.”며 밝게 웃었다.

2011년에는 20여 명의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기획청 청사에서 기획청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했다.



로시오 (36, Rocio Cano Jiménez, 대통령실 직원)씨는 강좌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어에 대해 알게 되어 파라과이에 사는 한국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 사람, 역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웃으며 말했다.

그 외에도 교육원은 한국문화 체험교실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한국음식축제 등을 개최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에 대한 홍보와 교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이생강대급산조(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의 이수자이기도 한 김대관 교육원장이 전통문화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험교실에 참석하고 있는 변성희(45, 문화체험교실 수강생, 교민)씨는 “문화체험교실을 통해 한지공예와 도자기공예의 멋스러움을 나타내고, 옛 사람들의 흔적을 느껴주셨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현지사회와 현지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멋과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대관 원장은 “수강생 대부분이 현지의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한국 교민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한국과의 교류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적인 마인드까지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이야말로 각 나라의 외교부가 지향하는 공공외교²⁾의 첨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IV.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파라과이

산림과 천연자원의 보고 파라과이는 1811년에야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하면서 국력증강에 힘을 쏟아 왔다. 1844년 신헌법이 제정되고 안토니오 로페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년간 통치하면서 남미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후 2대 대통령인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는 1864년 국경문제로 갈등을 빚던 인접 3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5년 간에 걸친 3국 동맹과의 전쟁은 솔라노 로페즈 대통령의 전사로 끝이 났지만, 파라과이가 입은 상처는 깊었다. 전쟁 직전 130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전쟁 후 22만 명만이 살아 남았고 그중 성인 남자는 10%에 불과했다. 학교는 폐쇄되고 언론은 통제되었으며 국토의 절반을 강탈당했다. 세계적 관광지 ‘이과수폭포’도 이때 빼앗기게 된다.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여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올라선 것처럼 파라과이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60여 년 전 우리가 해외원조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파라과이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젠 우리가 파라과이 도약의 발판이 되어 주자. ✎

2)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외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의 교류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 미국 국무부는 부내에 공공외교·공보담당차관(Under-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을, 일본 외무성은 광보문화교류부(廣報文化交流部, Public Diplomacy Department)를 설치하는 등 현재 각국은 조직정비를 통해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정책과가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2012.1.20)

※ 최근 군사, 경제 등 하드파워보다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의 발달로 국민의사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SNS의 발달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성교육 본격 추진 1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I. 인성교육실천 추진 배경

1. 인성교육 부재가 낳은 교육위기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자,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건국 이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반세기만에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교육은 개인주의 풍조를 만연시켰고, 학력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학교 교육의 위상은 하락되고 있으며, 교권이 실추되고 교직의 권위 또한 약화되는 등 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학교폭력 및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얼룩진 현실은 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교육’으로 바꾸고,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2.6)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이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진단하며 인성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2. 인성교육 현주소

그러나 인성교육의 강화는 전혀 새로운 처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성교육은 교과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강조되어 왔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언제나 성적중심·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가정이 자녀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망기하고, 학교마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면서 인성교육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과중한 학업으로 접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시행되던 인성교육 프로그램조차도 봉사활동, 강연회, 수련회 등을 통한 1회성 행사위주 교육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인성교육과 이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총체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자성을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성의 개념 없이 전인교육이나 도덕성과 같은 다소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여 실천적 구체성이 결여된 채 특정교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측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 시대가 요구하

는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반영한 실천적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대통령직인수위의 인성교육 강화책

새 정부도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민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새 정부가 근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간절한 요청이 한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한편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 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 문화 조성을 최우선 계획으로 삼으면서 인성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이를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를 강화하도록 했다. 새 정부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큰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II.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 경과와 내용

1.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제시되면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활동들이 수립·전개되었다. 제일 먼저 2012년 3월, 인성교육비전 수립을 위해 꾸려진 정책연구팀에서 민간 주도의 인성교육 실천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주도할 민간 중심의 단체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책연구팀은 참여자와 단체를 늘려가면서 민간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로 확대되었는데, 이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교원단체,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의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교육실천포럼이 결성되었고 첫 포럼을 5월 25일 개최하게 되었다. 결성식을 겸한 첫 모임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실천 운동의 각오를 다졌다.

포럼 결성 후 참여단체와 인사, 전문가들 간의 방향 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2012년 7월 24일에는 인성교육 실천을 주도할 민간단체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10개 실천분과와 160여 개의 참여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실련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식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면서,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공감과 소통, 긍정과 자율,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사회성,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2. 교과부의 인성교육 비전 발표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인실련이 강하게 정책화를 요구했던 인성교육의 추진을 위한 인성교육비전(시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2012년 9월 4일, 인성교육 비전(시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그동안 성적·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다면서 인성교육을 가정·학교·사회 등이 함께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에는 여러 가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사회 및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성교육 개념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 3개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 덕목을 정직과 책임, 공감과 소통, 긍정과 자율을 제시하여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교과부의 인성교육 비전 시안을 보다 세밀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체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교육으로의 재구성이다. 기존의 지식위주 교육을 역량 중심 실천·체험 위주 교육으로 접근하고 실제 삶과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과의 관련 속에서 느끼고 갈등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둘째, 언어문화 개선, 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학교·가정·사회의 협력과 사회적 자본의 회복이다. 인실련 등 민간단체를 통한 범사회적 캠페인의 추진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가정·사회의 총체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교육주체 사이에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고 학생의 올바른 인성 발달과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인성교육의 강점

(도덕성 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성개념(사회성, 감성 등) 보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새로운 인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인성 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범국민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인성교육의 지속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인성교육 비전 시안은 한국교총과 인실련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의 요구 내용과 방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 정부의 발표치고는 이례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2013년 5월 31일 제1차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공모전을 통해 22개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였고, 인증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단위학교에 확산·보급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36명으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¹⁾ 하여 입법부와 정치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천 주간 등과 보조를 맞추어 라디오·신문 광고를 통해 바른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감사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표준 인성교육 연수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30여 종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 민간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직교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Ⅲ. 인실련과 정부의 인성교육 1년 성과

1. 인실련의 활동과 성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국민적 염원의 결과로 인성교육 허브역할을 담당할 인실련이 민간단체로 출범하였음을 앞서 이야기했다. 226개 단체(출범 당시에는 161개)의 참여로 결성된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가 상호 협력,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과 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인증하고 확산시켜,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실련 창립 1년의 활동을 정리하면 첫째,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학술단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적·인증·관리하여 프

1) 상임대표 정의화 의원(새누리당), 공동대표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신학용 의원(민주당)



2.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과부의 정책활동

먼저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조치로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 핵심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의 함양 및 지속적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이다.

총론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목표에 인성요소를 강화하였다. 초·중·고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성함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교육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집중이수제를 개선하여 체육·예술 교육의 강화를 통한 '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반영하였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시수를 확보하였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단위학교 인성교육 실천운동은 기존의 하향식 인성교육 실천방안이 아닌 단위학교의 특색에 알맞은 상향식 실천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론교육 중심에서 실천과제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생활 속 실천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인성교육 실천주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부가 교육부로 개편되면서 인성·체육·예술교육을 개별이 아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담당부서도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 강화정책이 구현되었으며 인실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상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IV. 인성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가정·학교·사회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특성화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정부 및 각 기관·단체의 노력

가. 인성교육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현장 보급

교육청마다 나름의 인성교육 목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급별 급훈과 학교마다의 교육계획서에서 나타나듯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인성교육은 어느 한 가지 내용이나 방법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균형적이고도 체계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바람직하다. 인성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추진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나. 중장기적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인성교육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연간 교육과정 수립 시 인성교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학교예산 수립 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할당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포괄적·범정부적 제도 마련

아울러 인성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성교육활성화지원법의 제정 등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학생·청소년·가족 관련 부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인성교육 활성화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학교, 인성을 입시 및 취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과 직장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merit)을 하는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인성교육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인성교육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인실련은 회원단체의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다각화를 기하고, 회원단체와 공동 주최 혹은 주관을 통해 전국적인 사업효과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가정·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운동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인실련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국적 지회 조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지역별 특색과 현실에 적합한 우수 인성교육 실천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산·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인실련은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의 교육특별교부금, 외부 기부금, 인성교육 실천관련 연구 외부수탁과제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풍부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 자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실련은 순수 민간기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관, 민간단체, 개인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촉발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 확산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결어 및 제언

필자는 최근 한 신문의 조그만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지난 2013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의 국어영역 마지막 문제에서 지문으로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자궁암에 걸린 엄마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삼수생 아들,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은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눈물이 나서 시험지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시간은 없었지만 지문을 끝까지 읽었다’, ‘우느라고 시간이 모자랐다’ 등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필자도 궁금해 시나리오를 구해 그 장면을 읽어 보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우리의 본모습이 그 짧은 대화에 다 나와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고결하고 품위 넘치는 고부간, 부부간 그리고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 무엇보다 필자를 감동시킨 것은 어린 고3 학생들이 그들의 대화에 공감하고 자기를 되돌아봤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인성의 부재라는 시각으로만 보아왔던 우리 학생들로부터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도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잔잔한 것을 찾아 학생, 청소년에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게 필자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성교육과 실천운동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급하게 제기된 점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잠잠해지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높다. 학교·가정·사회는 모처럼 찾아온 인성교육 실천의 기회를 십분 활용,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데 합심해야 할 것이다. 또 인성교육이 실천이 아닌 단순한 지식으로서 또 다른 점수 따기·스펙 쌓기의 경쟁도구로 전락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기를 목욕시키려다 목욕통만을 청소한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피로감으로 국민적 거부감으로 확산될 것이고 결국에는 인성교육 무용론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인성이 반듯한 국민을 육성하여, 가까운 장래에 세계 일류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헌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인실련의 모토와 같이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혁신적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ㄹ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인성교육비전보고서(안).
- 서덕희(2012).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인성교육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양승실(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염철현(2012).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 유병열 외(2012). 인성교육의 체계화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천세영 외(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현주(2012). 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2013). 글로벌 인재를 위한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학벌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NCS 구축과 활용



글
·
나승일
교육부 차관

I. 이제는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6·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
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
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상급학교 진학 준비에 급급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보다 상급학
교로 진학하기 위한 공부, 명문 고교를 거쳐 명문 대학에 진학
하기 위한 획일적인 교육에만 매몰되어 왔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대졸자가 양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거둬지는 구직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희망 없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고학력자에 비해 일자리가 많아 그런대로 구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로 접어든 이후로, 게다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청년들은 더욱더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학문의 전당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진로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문중심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공 공부와는 별개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스펙 쌓기에 전념하는 실정이다. 비록 어렵게 입직을 한 뒤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입사원 교육에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평균 19.5개월 간 재교육을 받고 이 때 회사가 투입하는 돈이 1인당 약 6천만 원이라는 현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와 취업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비 낭비가 발생하였고, 입직 연령은 그만큼 늦춰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입직연령은 25.6세이다. 이는 OECD 평균인 22.9세보다 훨씬 늦은 것이다. 게다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로 진입하는 평균 입직연령은 훨씬 더 높고, 고학력자의 입직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조기입직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입직을 한 후에도 입직 당시 학력이나 직종에 따라 소득이 양극화되고 사회적 계층이 나뉘어져 평생 보이지 않는 층에 갇혀 버리는 문제가 있으며, 입직 이후 승진이나 이직에

대한 경력경로가 다양하게 마련되지 못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재직 중에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역량이 통용성을 보장받지 못해 역울함을 겪기도 하였다.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능력을 상호 인정해 주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가 고질적인 학벌사회를 지양하고, 선진국형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 기제가 바로 NCS이다.

II. NCS란 무엇인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때 NCS란 우리말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며, 일자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력 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16,000여 개의 직종이 있다. 그렇다면, 몇 개의 NCS가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850여 개의 NCS가 필요하다고 한다. 필요한 NCS의 수량은 고용분류(직종)에 따라 나뉘지만, 주의할 점은 유사한 직종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 및 역량들을 도출하여 제시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NCS는 여러 개의 핵심능력단위(unit of competency)로 구성된다. 이 때 유사한 명칭의 능력단위라고 할지라도 NCS의 성격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¹⁾

1) 예를 들어, 동일한 '테이블 정리' 능력단위라도 카페의 테이블 정리와 음식점의 테이블 정리는 수행준거의 차이가 발생함.

한편, 개발과정에서 능력단위의 수는 NCS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직종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단위의 수는 전 분야의 NCS 개발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NCS는 10~30개 정도로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균 10개의 능력단위가 포함된다면, 총 8,500여 개의 능력단위가 존재하게 된다.

NCS에 포함된 각 핵심능력단위(unit of competency)는 그 수준이 제시된다. 즉, 핵심능력단위별 수준(level)은 그 수행 범위,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대체로 8 수준, 10 수준 혹은 12 수준²⁾으로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데, 가장 높은 숫자는 최고 수준을 의미하고 흔히 박사 혹은 최고 전문가로 간주한다. 또한, 각각의 핵심능력 수준은 곧 교육훈련 수준을 나타내고, 개개인이 지닌 능력을 평가하여 그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NCS가 개발 완료되면, 어떤 직종(일자리)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핵심능력단위들을 추출하여 제시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NCS는 교육훈련이 일자리, 자격제도 등과 상호 연결되어 이루어지도록 견인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에는 NCS는 일자리 중심의 개념이지 특정 학문의 타당성이나 실용성을 평가하는 준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특정 학문을 NCS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Ⅲ. NCS, 왜 필요한가?

NCS는 현장과 교육훈련 및 자격의 일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일자리 중심 교육의 원천이 되며, 인재 선발이나 채용 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직종 간 차이를 명확히 하여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근간이 되기 위하여 NCS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첫째, 일자리와 동떨어진 우리 교육을 현장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NCS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일자리,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어 인력 미스매치(mismatch)가 심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기관은 학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지식 위주의 교육만을 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졸자나 대졸자의 경우처럼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중도에 사회 현장으로 진출하는 졸업자들의 경우, 준비 되지 않은 채 일터로 나오게 되어 고용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즉, 교육이 일터 현상이 원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가르쳐 배출해야 하는데, 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지니지 못해 왔다. 따라서 NCS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마다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확인하여 인재의 선발이나 채용 시 잣대가 되도록

2) 유럽은 대체로 8단계 혹은 12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8단계 기준 시 8수준 박사, 7수준 석사, 6수준 학사, 4-5수준 전문학사, 3-4수준 특성화고졸, 2수준 반숙련 인력 등으로 구분



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용주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무슨 일이든 다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mis-conception)으로 학벌 중심으로 좋은 대학 출신의 학생만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일은 직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력의 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임금 및 사회적 지위 또한 엄연히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많은 교육을 받고,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쌓고 취업한 학생들은 불만을 갖고 퇴사하며 방황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발이나 채용 시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NCS가 필요하다.

셋째, 직종 간 차이를 비교하여 개인의 학력이 아닌 직종의 특성에 따라 임금을 부여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최종학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종사하는 직종의 난이도 등이 결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숙련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사회적으로도 낮은 대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NCS를 통해 직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대우를 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일자리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 성장, 발전하는 경력개발 사다리를 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써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직자에 대해 경력성공의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재직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하고 싶어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따라서 직종 내에서 경력을 쌓아 상위 직급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습득해야 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력발달 사다리의 제시는 NCS를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이동 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학력, 자격, 경력 등의 등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하기 위해 NCS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학력이나 자격 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이러한 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습득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제로 NCS가 필요하다.

IV.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NCS는 현장 일자리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NCS가 제대로 개발되려면 현장 일자리에 있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핵심이다. 실제로, 오랜 전통을 지닌 유럽 선진국에서는 현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SC(산업별협의체, Sector Council)가 중심이 되어 개발·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누가 NCS를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 선진국처럼 SC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페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 NCS와 NCS 학습모듈을 동시에 개발하는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Working Group은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전문가, 직무분석가, 학습모듈 전문가, SC 관계자, 고용주, 유관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NCS 추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아울러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단위로 조정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NCS가 일자리 중심의 교육이나 훈련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NCS 학습모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NCS 학습모듈이란 NCS에 제시된 핵심능력단위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재이다. 특히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이 가능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NCS 개발과정에서 검토되고 수집된 작업 지침, 매뉴얼, 품질 평가 기준, 장비 사용법 등이 활용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스토리나 경험이 생생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Working Group 내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학습모듈 개발 전문가가 포함되게 된다. 학습모듈 개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발할 NCS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NCS에 기반한 학습모듈을 개발할 때 적절한 현장중심 교육 자료나 사례가 없어 시중의 학문 중심 교재를 짜깁기하여 현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NCS와 NCS 학습모듈(표준교재) 개발이 거의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NCS 개발에는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NCS 표준교재(학습모듈)로 만들 교육훈련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협력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개발 단계에서는 현장 전문가가 주가 되고 교육훈련 전문가가 현장의 언어, 현장의 기술을 습득하며, 표준교재 개발이나 활용에서는 교육훈련전문가가

주가 되며 현장 전문가가 현장의 자료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 즉, Working Group에 참여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도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향후 개발일정을 보면, 2013년 250개, 2014년 241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내년까지 이미 개발된 331개 중 286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발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³⁾, 우리보다도 늦게 착수했지만 이미 NCS를 완성하여 일자리 중심 교육과 국제적 인력 통용성을 확보한 나라들이 130여 개 국가에 이른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간 30개 정도씩 꾸준히 개발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CS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도 2년 내에 완성한 사례가 있어 서두른다는 비판은 기우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기술변화에 있어서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로 NCS의 현장성이 개발 후 단 몇 년 사이에 떨어지게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변화에 뒤처질 수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의 절차, 기기 활용, 세부 기술의 변화 등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업데이트하고 NCS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일자리와 여기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NCS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무서워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 주도로 NCS를 개발해 왔음. 그러나 당시에는 고용노동부(구 노동부)는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를, 교육부는 KSS(Korea Skill Standards)를 각각 달리 개발하였음. 이로 인해 협업보다는 전형적인 부처 칸막이 및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성과 또한 지지부진하였음. 이 당시 개발된 NCS는 약 330개였으나, 교육부 소관 자격기본법에 따른 NCS 인증은 50여 개에 불과함. 그 후 2010년 5월에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 오늘의 NCS로 통합되어 개발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는 500여 개 개발, 기개발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조 기개발 원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V.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NCS는 인력양성에서 채용, 경력개발 등 개개인의 전 생애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교육분야에서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 개선을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서도 실무중심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자격분야에서는 산업수요에 맞게 자격을 개편·관리할 수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에는 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입직 후 평생에 걸친 경력 개발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인력의 상호 인정 기준으로서의 국가역량체계(NQF)를 확립·활용하는데 NCS가 활용될 수 있다.

1. 일자리 중심 교육

가. 일자리 중심 교육과정 개편

일자리 중심 교육이란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이 보다 일자리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목표로 설정한 인력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장비 사용법 등을 밝히는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업교육 기관조차도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학문 중심, 지식 중심으로 구성하여 가르쳐 왔다. 또한, 직무분석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직무분석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보다는 전문가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거나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NCS가 개발, 완료하여 보급된다면, 우리 교육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하나의 내용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일자리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 교육과정을 보다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별도의 직무분석이 필요 없이 그대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이다. 특히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운영될 수 있어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일자리에 종사할 고졸 수준의 인력을 양성 하려면 그 종사자에 요구되는 핵심능력단위들을 국가직무능력 표준 체제에서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과 또는 전공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NCS 데이터베이스(DB)에서 핵심능력단위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시키면 현장이 요구하는 입직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직종의 고졸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에서는 A직종과 관련된 NCS 중 특성화고 수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들을 조합하여 현장 중심의 모듈식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자격과 연계 지어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부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운영하려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NCS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교육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까지 한 번에 개편이 가능하다.

한편, NCS의 적용이 가능한 학교급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모든 학교급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NCS 개발이 2014년에 완성되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NCS 활용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NCS가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직업교육 전담 기관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대 등에 우선 적용하고, 초·중·고의 경우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 핵심역량들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일반 대학의 경우는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나 전문대는 국가 차원에서 NCS 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4년제 대학에서 과연 활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의·치학, 간호학, MBA,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NCS에 준하는 현장 중심 모듈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본다. 다만 이론적 부분과 NCS를 활용한 현장성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지는 대학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이 밖에도 직업교육기관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종 중에는 대졸자, 석사, 박사급의 인력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NCS에는 이들 수준의 능력단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도 충분히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현장중심 교수학습 개선

NCS를 통해 과거 막연했던 교육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설정할 수 있고, 목표로 하는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단위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핵심능력들을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나 교수 차원에서 담당 과목의 교수학습에 보다 현장성 있게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NCS를 활용하여 담당 과목의 내용이나 교육방식을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CS를 바탕으로 한 학습모듈은 하나의 표준화된 교재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실정이나 교육생의 수준·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및 재분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NCS와 표준교재는 개개인의 핵심직무능력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발된 NCS를 바탕으로 표준교재를 개발·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표준교재는 NCS 개발단계에서 현장 전문가와 교육훈련 전문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 없이 필요한 표준교재만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의 특성에 따라 내용의 가감을 통해 특성 있는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2. 실무중심 직무능력 향상 직업훈련

사업체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기술학원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격을 즉각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기준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롭게 설정하는데 NCS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CS와 NCS 학습모듈이 보급되면 기존의 훈련기준은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일한 훈련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실제적인 직업훈련의 질적 차이는 직업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마다 질적 차이가 다양하여 직업훈련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질 관리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간 직업훈련과정이나 기관평가도 지속적으로 펼쳐 왔지만 여전히 직업훈련 요소의 접근에 따라 평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안이 바로 NCS와 NCS 학습모듈에 기반한 직업 훈련과정의 설계와 운영이다. 즉, 표준 직업훈련과정이 제시되어야 하고, 훈련과정에 포함된 핵심능력단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표준 교재(NCS 학습모듈)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이수자마다 이수한 핵심직무능력에 대한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직무연수를 필요한 직업훈련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학위과정 사내대학이나 각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 실적이 누적 관리되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학점은행제와 연계되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NCS와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훈련생은 현장에서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단위들을 선별하여 자신만의 훈련과정을 스스로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산업수요에 따른 자격 개편 및 관리⁴⁾

NCS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자격제도로 재설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격에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에 기초한 국가자격으로 나뉜다.

그간 많은 현장성 중심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발전이 있었지만, 지식기반 산업구조와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채용단위에 비추어 너무 세분화된 국가기술자격이 많은 실정이다. 즉, 국가기술자격에서는 다루고 있는 직무의 범위와 인력의 채용 단위가 서로 맞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한, 두 개의 자격증만으로는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 기대에 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NCS를 기반으로 자격을 고용단위로 재설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단위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NCS와 같은 기준이 없이 개발되다 보니, 자격 간의 중복문제, 특정 직무능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 자격증의 레벨과 실제 직무 수준이 맞지 않는 문제, 자격이 현장과 통용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NCS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자격검정을 위한 출제기준도 개편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이나 출제기준은 학문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민간자격의 경우는 고용이 가능한 척도로서의 자격이 아닌 단순한 교육 이수증에 준하는 자격들이 많은 실정이다. 즉, 4,000여 개가 넘는 자격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기관의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활용되어 국민의 피해가 크다.

따라서 이 경우도 NCS 능력단위 조합으로 자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 한편,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나뉘며,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인해 주는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나뉜.

4. 직무능력평가를 통한 인력 채용

채용단계에서 입직 수준의 직무능력 수준을 평가하여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다익선으로 좋은 학력이나 학벌이 선호되어 왔다. 최근 일자리에 비하여 지원자가 많다 보니 더욱 학벌사회가 되어 버렸다. 특히 지방대 출신의 경우는 입사원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나 설령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전형과정에서 제외되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이 되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채용기관에서도 점수, 시험,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 중심이 아닌 실제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데 NCS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채용기관마다 채용하려는 직종(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능력단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핵심능력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채용공고에서 단순히 학력이나 불필요한 스펙만을 요구하고 있어, 채용 후에도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식 위주의 시험을 통해 채용을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직종 간 서열화, 배치단계에서 패배의식, 개인의 열등의식, 원하지 않는 직무에 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NCS를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능력단위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 능력만 확보된다면 채용하는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종 간의 서열화 문제나 잘못된 배치 문제 등이 해결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직자 역시 자신이 이수한 능력단위를 이력서 등에 제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개개인의 핵심능력단위의 성취 수

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만을 찾아 배울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채용 시 NCS를 활용한 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는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평가체제이다. 이때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은 NCS 능력단위 중심으로 도출하여 평가하므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5. 평생에 걸친 경력 개발 및 관리

NCS를 활용하여 개인의 경력관리 측면에서 경력개발을 위해 어떤 능력을 추가로 습득하여 장기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해진다. NCS를 활용한 모듈식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해당 직종에 필요한 능력단위 중 유사한 수준의 능력단위를 모듈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이후 재직 중에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직자 스스로가 직업훈련, 현장경험 등을 통해 다음 수준의 능력단위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재직자는 NCS 능력단위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최종 경력목표 및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국가나 산업 차원에서도 해당 직종의 경력경로를 NCS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재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능력단위별로 제시된 수준을 직급이나 경력 년수 등으로 환산하여 제시가 가능하다.

6. 능력 및 인력의 상호 인정 기준으로서의 국가역량체계(NQF)

NCS는 개개인이 습득하거나 지닌 능력을 인정하고, 비교 가능하며, 국제적 이동 인력에 대한 상호 인정하여 국제적 통용



성이 확보되는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점이자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만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또한, 최종학력이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 다니고, 경력을 쌓아가며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능력중심사회에서는 학력 이외에도 자격이나 경력 등이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NCS 능력단위의 수준을 바탕으로 최종학력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현장 경험, 독학, 학점 이수, 자격취득 등으로 습득해 나가고 이를 학력이나 자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마치 교사가 임용될 당시 기간제 교사 경력 등 다양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장한 능력을 NCS를 기제로 한 하나의 인정체계인 NQF를 도입·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NCS를 바탕으로 구축한 NQF를 통해 인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최종학력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획득한 자격, 현장경험, 훈련결과 등의 등가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이직 시에도 자신의 역량을 명확하게 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력 이동 시에도 타 국가의 역량체계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 FTA시대 인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국가들끼리 EQF를 중심으로 상호 호환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보다 시급히 도입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VI. 결론

NCS는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갈 핵심 키 역할을 담당한다. NCS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교육적 낭비 없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입직시기를 앞당기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입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수직적 이동이 가능할 것이며, 자신이 갖춘 능력을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즉, NCS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변화시킬 희망의 기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NCS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역량이 축적되어 왔으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성을 반영하고 활용측면까지 고려한 NCS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다 빨리 개발을 완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NCS의 개발과 동시에 표준교재 개발, 현장에서의 활용 또한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발자, 교육훈련 종사자, 현장의 고용주 및 채용주체, 학생 또는 훈련생, 현장 재직자 등이 하나된 마음으로 개발과 활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과 전망



글
·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I. 초등 돌봄서비스의 추진과 성과

1. 추진배경

2004년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탁아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대상

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었다. 2006년 정부는 사교육비 및 교육격차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여성인력 활용, 방과후 자녀의 교육·보호, 저출산 등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한 방안으로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방과후학교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방과후학교의 한 유형으로 적용된 ‘초등보육교실’은 2006년부터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저학년 자녀를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400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었다. 또한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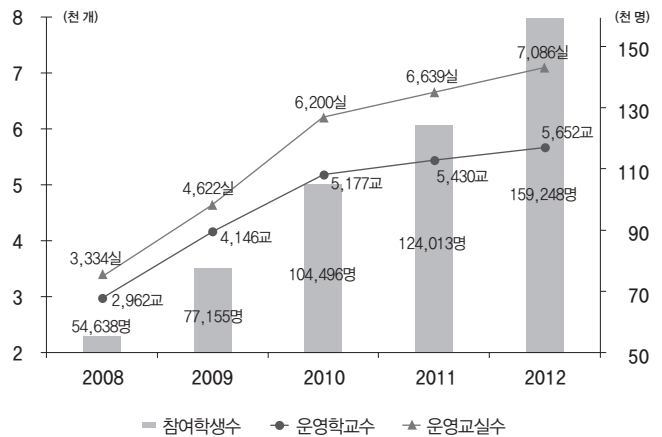
주말과 방학에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정규수업+방과후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저녁돌봄교실’의 운영이 논의되었으며, 2009년 야간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의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도 많아지고,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수도 많아졌다. 이 기간 동안의 돌봄교실은 대부분 방과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나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술과학부는 2011년에 기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한 아침돌봄(오전 6시반~오전 9시), 오후돌봄(방과후~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밤 10시)을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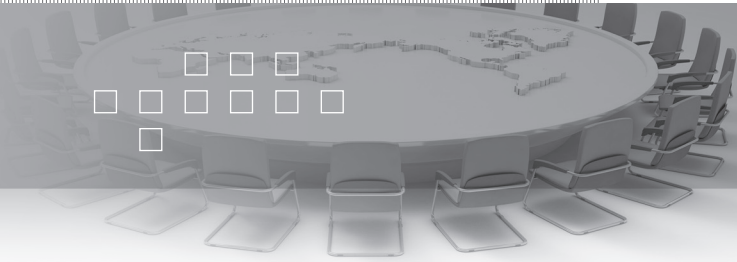
하였다. 기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유치원 중 공모 및 심사 과정을 통해 1,000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2년에는 보다 확대되어 1,700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운영되었으며, 2.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 운영실태와 성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2년 4월 현재 5,652개교이며, 이는 전체 초등학교의 96.0%이다. 돌봄교실의 수는 7,086개이며, 대부분 학교당 1개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2~3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 수는 총 159,248명으로, 전체 초등학교생의 5.4%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교실에는 1~2학년 학생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2008년~2012년)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60.3%,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25.0%를 차지하고, 무상참여 학생이 66.4%, 유상참여 학생이 33.6%를 차지하고 있다. 유상 참여학생의 월 평균 부담 수강료는 36,142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 3.7%, 중소도시에서 4.9%, 농어촌 읍면지역에서 15.8%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돌봄교실에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돌봄전담강사는 14,298명이다.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과부(2012)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88.4점, 8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경감효과, 자녀의 정서발달, 여성의 사회진출에의 기여, 향후 참여의지 등에 있어서도 85~90점 사이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II.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돌봄이 확대·강화되어 왔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진출 부담,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등 여러 가정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 확대’를 제시하였으

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돌봄을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 돌봄 프로그램(간식포함)을 제공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 추가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밤 10시까지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녁급식 포함). △무상돌봄프로그램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1~2학년은 2014년까지, 3~4학년은 2015년까지, 5~6학년은 2016년까지 확대·적용).

1. 기존의 돌봄서비스와 확대 시행될 돌봄서비스의 성격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미래의 돌봄 프로그램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비용부담, 대상학생 학년과 수, 운영형태에서 볼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돌봄 프로그램은 주로 일정한 수(구축된 돌봄교실 수 - 학교당 보통 1개 - 에 따른 학생 수, 보통 20명 내외)의 저학년 학생이 학생 여건에 따라 무료나 유료로 참여하였다. 오후돌봄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은 일부 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700개 정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학생이 무료로 참여하며, 모든 학교에서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이 시행된다. 즉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10시까지 저녁돌봄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침돌봄은 학교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1~2학년 학생은 돌봄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에서 돌봄전담강사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거점교실(일반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학교교사, 돌봄강사 등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또 현재는 학기 중과 방학 중에는 일부 학생은 유료, 일부 학생은 무료로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중에는 무료로 참여하나 방학 중에는 유료와 무료로 참여하게 된다.

2. 확대 시행되는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무료로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무료 돌봄프로그램은 '체험활동'과 '개인자율활동'으로 구성된다.

〈표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료 돌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활동 개인자율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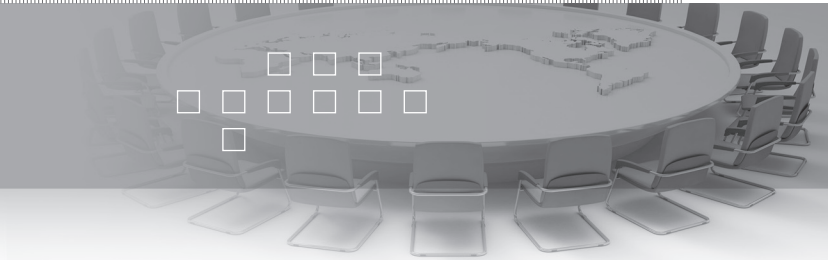
체험활동은 학생이 집단적으로 강사가 지도하는 다양한 특기적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활동(플러트, 요리, 종이접기, 줄넘기, 댄스, 창의미술 등)을 의미한다. 교과학습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다. 돌봄교실, 일반교실, 기타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자율활동은 학생이 돌봄전담강사나 학교교사 등의 지도, 감독 하에 개인적·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교과보충학습, 학습지하기, EBS 영어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돌봄교실이나 거점교실(일반교실, 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면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내고 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돌봄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특기적성활동, 개인자율활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오후돌봄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험활동, 개인자율활동, 간식, 휴식시간의 시간단위, 순서 등은 학교가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

〈표2〉 오후돌봄 프로그램의 예

저학년(1~2학년)	
시 간	내 용
13:00 ~ 14:30 (90분)	체험활동
14:30 ~ 15:00 (30분)	이동 및 간식
15:00 ~ 16:50 (110분)	개인자율활동
16:50 ~ 17:00 (10분)	귀가지도

학교는 오후돌봄에서의 체험활동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학교가 체험활동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학년 1반 돌봄교실이 있다면, 월요일 - 플룻, 화요일 - 줄넘기, 수요일 - 종이접기... 등과 같이 학교가 수요조사를 통해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강시간에는 돌봄교실이나 기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인 자율활동을 한다.

개인자율활동은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거나(A안), 학교가 학생이 해야 할 활동내용(숙제, 독서, 학습지 하기 등)을 지정해 주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하거나(B안),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C안) 할 수도 있다. 저녁 돌봄 시간에는 학생들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표3〉 저녁돌봄 프로그램의 예

시 간	내 용
17:00-18:30	일기쓰기
18:30-19:3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20:30	숙제 등 자율활동
20:30-22:00	EBS 시청하기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방안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하여 학교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교여건에 적합한 안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초등 돌봄서비스의 전망

1. 확대 시행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무상으로 운영되는 돌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학교의 업무 부담은 많아지고 국가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또 많은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 잘못하면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기 쉽다.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질을 제고하며, 투입되는 자원(예산,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대 시행되는 돌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업무 부담 경감 : 지역사회와의 신뢰성 있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대학 등)에 대한 돌봄교실 위탁운영 확대, 행정지원 인력 제공, 공동 간식 및 급식 제공 방안 마련 등
- 전문성 있는 돌봄전담강사 및 외부강사 확보 : 우수강사 풀 구축, 강사 연수, 우수강사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순회 강사 등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강사 확보 등
-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 확보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활용 : 지자체, 박물관·



문화원 · 기업 · 버스회사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 교육 및 재능 기부 확대

- 프로그램의 질 제고 : 수업 모니터링 · 컨설팅, 수업평가, 표준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
- 안전관리 체제 확보 : 야간 귀가,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교통 수단 제공, 안전사고 시 보험처리 방안 등
-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 :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생활지도 방안 마련
-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 이해 제고 : 가정통신문, 연수,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 참여
- 학교교원의 이해 및 참여동기 제고 : 방과후 돌봄에 대한 연수, 학교 내 돌봄 추진 인력의 확대,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 : 돌봄교실 구축비, 돌봄전담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보조인력 인건비, 간식비, 급식비 등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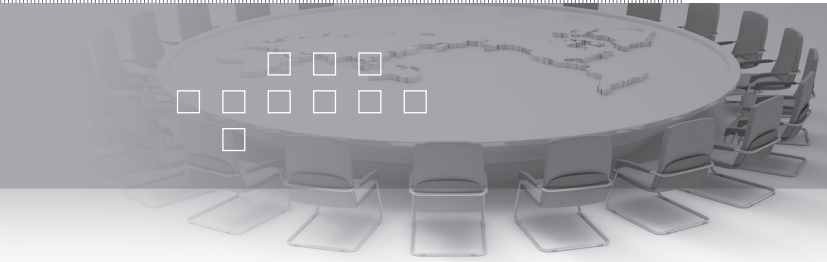
교육부는 모델학교 78개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모델 시범운영을 통해 오후돌봄 및 저녁돌봄 프로그램의 편성, 돌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2.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재 교육부의 돌봄교실 이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사업이 그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돌봄정책사업들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연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질 높게 제공하지 못하고,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교육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작년 말에 부처간 협약을 체결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 · 운영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역 수준에서의 돌봄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돌봄 운영협의체는 중앙 및 지역 수준(시 · 도/시 · 군 · 구)에서 주요 돌봄 정책 및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운영한다. 중앙수준에서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 : 이는 초등학생의 돌봄수요에 대한 종합적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 하반기에 전국 초등학생 및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연계하여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돌봄사각지대 해소** :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및 지역사회 돌봄 참여 현황,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동장, 이장 등) 등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하나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발굴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돌봄서비스 네트워크체제 구축 및 운영** :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 교류, 프로그램 교류, 강사 교류 등과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관 상호 방문의 날, 공동 연수 및 워크숍, 공동 컨설팅, 공동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6개 시·군·구 지역(경기 성남시 및 전남 나주시, 울산 울주군 및 전북 진안군, 서울 노원구 및 부산 서구)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는 정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

족부, 안전행정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여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돌봄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은 지역사회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방과후 돌봄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될 것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오후 및 저녁 무상돌봄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스템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돌봄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학부모는 부담 없이 어린 자녀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은 방과후에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는 우리가 선진 돌봄·양육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돌봄·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구현해야 한다. ✎



왕따 · 학교폭력 뿌리 뽑는 풀뿌리 프로그램 ‘평화샘 프로젝트’

서울 매봉초등학교

글

김경학

경향신문 기자



‘평화샘 프로젝트’란?

‘예전에는 따돌림 받고 떠들어도 샘(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6학년이 돼서 따돌림이나 놀리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 같고, 샘들이 많이 도와줘서 마음도 통쾌하고 살 맛이 나는 것 같다. 예전엔 맨날 학교폭력을 당해서 지겹고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 밖에 없는 친구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치만 지금이라면 그런 것이 다시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개봉동 매봉초등학교 6학년 1반 윤성호 군(가명·12)이 지난 5월 남긴 글이다. 윤군은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왕따'보다 더 심각한 '전따(전교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였다. 윤군이 이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평화샘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평화샘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과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국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젝트다.

평화샘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운 교실을 지향하는 '샘(선생님)'이라는 뜻과, 땅속에서 물이 솟는 샘처럼 평화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문재현 마을공동체연구소 소장은 "두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후 다양한 사례, 특히 북유럽 여러 나라의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연구하고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역할극' 통해 피해자·가해자·방관자 등 서로의 감정 느껴

지난 5월 7일 평화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울 매봉초등학교 6학년 1반을 방문했다. 민방위 훈련이 있던 이날 학생들은 야외훈련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로 들어온 학생들은 첫번째 역할극을 시작했다. 역할극은 피해자·가해자·동조자·방관자·방어자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피해자 역할을 자칭한 조승현 군(가명)이 교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가해자를 자칭한 김준호 군(가명)이 조군을 향해 '전따(못난이라는 뜻의 속어)'라고 부르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른 척하는 방관자 역할을 담당했다. 피해자 조군은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해자 김군은 "통쾌하고 괴롭히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역할극에는 가해자의 폭력을 저지하는 방어자 역할을 자칭한 최재석 군(가명)이 등장했다. 가해자 역할인 김군은 첫번째 역할극보다 다소 위축돼 보였다. 피해자 조군은 "(최군이) 고맙기는 한데 (최군이) 같이 당하니 미안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군은 "조금 빠친다(화가 난다). 놀리는데 옆에서 막으니까 놀릴 재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역할극이 반복될 때마다 방어자의 수를 늘려 갔다. 방어자 수가 5명 정도로 늘어나자 김군은 "당황스럽다. 이 행동을 계속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할극은 멈춰제도·4대 규칙·학급 카스트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평화샘 프로젝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멈춰제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멈춰제도는 폭력을 당한 아이가 '멈춰'를 외치면, 규칙에 따라 괴롭히는 아이는 그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하는 제도다. 폭력을 당한 아이가 멈춰를 스스로 외치





못할 경우, 주변의 아이들이 참여해 함께 멈춰를 외친다. 누군가 멈춰를 외치면 교사를 포함한 학급 전체가 긴급 학급회의를 소집한다. 공동체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아픔도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단 한사람의 요구에도 긴급 학급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 학급회의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상황을 재연하고, 입장을 바꿔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로 상황을 설명하다보면 말을 잘하는 학생의 의견이 강하게 전달돼, 학급 친구들이나 교사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재연을 하면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역할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의 역할을 바꾼 뒤 상황을 정확히 재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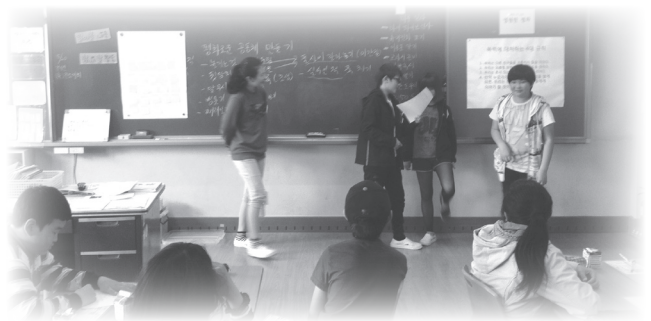
교사와 학생들은 재연 상황을 관찰하며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 중 어느 것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6학년 1반 담임교사인 이인찬 씨(29)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인성교육이니 뭐니 해도 아이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학교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도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나온다. 소식을 듣고 좌절을 많이 했다. 선생님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만연해 있었다. 멈춰제도, 4대규칙을 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보였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학급 카스트’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

평화샘 프로젝트에서 학급 카스트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인도의 신분제도에서 이름을 따온 학급 카스트는 피라미드가 그려진 종이를 주고 교실 내 서열을 도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학생들에게 학급 카스트를 그려보라고 했다. 학생들은 비어 있는 피라미드를 저마다의 서열로 채웠다. 칸 수를 4칸으로 나눈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둘로 극명하게 나눈 학생들도 있었다. 이름 옆에 이유도 적어 나갔다. 학생들은 ‘폭력을 많이 쓴다’ ‘매일 욕을 하며 맞장을 뜨자고 한다’ ‘무조건 폭력으로 해결한다’ 등을 써내려갔다.

카스트를 모아보니 일련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가장 상위에 있는 학생과 가장 아래에 있는 학생은 대부분 유사하게 나왔다. 가장 상위에 이름을 많이 올린 학생들에게는 나름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카스트의 위에 위치해 있는 아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보살핌을 못 받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잘 못 챙기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체벌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억압적으로 양육하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에게 약자인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자신들이 강자가 되니 가정에서 자신이 당한 것을 다른 아이들(약자)에게 그대로 행한다”고 말했다.



특이한 학생도 있었다. 조주환 군(가명)이었다. 학급 학생들 절반은 조군의 이름을 최상의 위치인 꼭대기에 적었고, 나머지 절반은 조군의 이름을 가장 아래에 두었다. 평범하게 여기던 조군이 절반의 학생들로부터는 괴롭힘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한 것을 나머지 절반에게 그대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이씨는 카스트를 통해 알게 됐다.

학급 카스트를 칠판에 적어 공개하자 상위에 위치한 학생들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이씨는 “카스트를 공개하자 가장 위에 위치한 아이들은 억울함과 분노, 일부는 수치심도 느끼는 것 같았다. 이런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 카스트를 공개했다’고 카스트 공개의 취지를 꼭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름을 활용해 ‘사랑 찬’, ‘지혜 찬’, ‘평화 찬’ 교실을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 반 이름을 ‘꼭찬 1기’로 정했다. 기수를 정한 것은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앞으로 1기에 이어 2기, 3기들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학부모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

이씨는 평화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왕따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학교에서는 체벌을 못하게 하는데 집에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체벌을 받아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다. 분명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소통이 안 돼 한계를 느낀다. 부모와 자녀 간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했는데, 생계형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 4명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록 4명 밖에 없었지만 직접 참여해 역할극을 한 부모들은 다들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봉초 6학년 1반 교실 뒷문에는 ‘꼭찬 1기, 급훈 영원한 평화’라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씨는 “이인찬이라는 내



풀뿌리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교육 실현

서울 한산미래학교

글

유현진

문화일보 기자



서울 시내 단 한 곳, 전교생 14명, 일반 중학교 내의 별관 사용, 옥상 운동장... 서울시 유일의 대안 공립중학교인 한산미래학교의 현주소다. 이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산미래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안으며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 강동구 둔촌2동 한산중학교 별관에 설립된 한산미래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등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하고 있다. 현재까지 96명이 이 학교를 졸업했고, 올해는 14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대안교육의 뜻을 품고 자원해 와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정애(여·54) 일본어 교사, 김정자(여·56) 국어 교사, 김희중(47) 체육 교사가 그 주인공. 3명의 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한산미래학교의 교사와 강사들이 학생들을 따듯이 품어주는 덕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등 변화하고 있다. 김정자 교사는 “중2병이라고까지 불리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탈선했던 아이들을 다루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교사의 사랑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교육

한산미래학교는 입학 전 5일 간의 준비적응 교육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상담과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중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비적응 교육기간 동안 매일 과제를 내 주는데, 부모님의 인생사를 써서 같이 나누고 가족의 바람과 자신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등이다. 이 내용들을 마지막 날 발표회를 통해 학생이 종합 정리해 발표하도록 한다. 김정자 교사는 ‘일반학교에서는 발표는커녕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았던 아이들이 가족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많이 우신다.’면서 “학교에서 하는 발표는 창피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대안학교에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가족을 돌아보면서 안정을 찾은 학생들은 대안학교에 적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런 효과 때문에 준비적응 교육 기간 외에도 매년 2회씩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한산미래학교는 대안학교답게 정규 교과 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는 김희중 교사의 지도아래 다같이 체조를 한다. 또 기타교실, 요리교실, 피겨스케이팅, 미술치료, 생활음악, 도자기공예, 생활스포츠, 생활과 사진, 식물 기르기 등 다양한 진로적성 수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인근 교육 시설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솔해 가기도 한다.

김정자 교사는 “일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박물관 등을 정해진 시간 내에 둘러보는 수준에 그치지만, 우리는 교사와 아이들이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서 “진정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한다.”고 말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24시간 보호자이자 친구

이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사들은 거의 24시간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등교 때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하교 때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준다. 하교 지도를 한 후 부모들에게 안내 문자도 매일 보낸다. 공 교사는 “아침마다 교문에서 웃으며 맞아 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 한다.”면서 “하교 때도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외에도 강사수업에도 참관해 아이들이 강사들에게 반항을 하거나 수업시간 중 자거나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수시로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교무실에 와서 교사들과 오목을 두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있다. 그 덕에 교사들은 쉴 틈이 없다. 김희중 교사는 “분노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항상 옆에서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자신들만의 규칙을 지키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 항상 혼나고 문제아로 찍혀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존중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변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교사가 아이들을 그저 혼내는 입

장이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이 터진 후 수습하는 건 늦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놀라운 변화

문제아로 찍혀 혼만 나던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꿈을 찾게 해주려 노력하면서 아이들은 더디기는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다. 공 교사는 지난 2011년 3학년이었던 A(여·17) 양을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로 꼽았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A 양은 당시 6개월 이상 가출을 하고, 담배를 피고, 폭력사건에 연루되는 등 탈선행위를 일삼아 1년 유급을 당한 후 이 학교로 오게 됐다. 당시 A 양의 성적은 서울지역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한산미래학교에 와 반장을 맡는 등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은행원이라는 새로운 꿈을 찾아 내신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금융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공 교사는 “A는 은행원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반에서 4~5등을 하는 등 성적도 좋다.”면서 “첫 월급을 타면 맛있는 점심을 사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한산미래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적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해 아이들이 원래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한산미래학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워 담임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

교사들이 허물없이 학생들과 어울리는 덕에 지난해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온 2학년 B(14) 군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는 “국어 선생님은 마치 엄마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상하게

지도해 주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다 재밌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산미래학교 설립 초기에는 아이들이 하교 후 학교 근처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의 불량한 행동으로 주민 민원도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이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불만도 사라졌다.

김교사는 “아이들은 잘 적응하다가도 한 번씩 벗어나는 등 한 번에 눈에 띄게 변화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대안교육이 지속되면 벗어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공립 대안학교 더 많아져야

교사들은 한산미래학교와 같은 공립 대안학교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고, 그 수도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산미래학교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자 교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어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다.”면서 “유형별 공립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2학년인 C(14) 양은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위협적일 때가 있다.”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따로 공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산미래학교는 한산중학교 별관에 위치해 있어 운동장도 건물 옥상을 이용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학생인원도 적다. 황성희 한상중 겸 한산미래학교 교장은 “서울 시내에 공립 대안중학교가 한 곳 뿐이다 보니 수요는 많지만 모두 받아주기

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지역청별로 하나씩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0일 한산미래학교를 방문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공립 대안학교의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희중 교사는 “아이 한 명이 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면서 “대안학교에서 변화돼 다시 원래의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교육현실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움과 돌봄 중심의 차별화된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경기 남양주 퇴계원고등학교

글
·
설향기
퇴계원고등학교 교사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위치한 퇴계원고등학교(교장 강명숙)는 1974년에 개교하여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퇴계원고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농촌형 면단위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작은 시골학교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2010년 9월, 강명숙 선생님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학교는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강명숙 교장은 건강인·도덕인·실력인을 양성하고자 ‘배움과 돌봄으로 꿈·희망을 가꾸어 미래를 여는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맞춤형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꿈·희망 가꾸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퇴계원고는

△2011년 창의경영학교 학력향상 우수교 △2011년 100대 학교 문화선도 우수교 △2011년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가 우수교 △2012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제4회 방과후 대상 우수교 △2013년 창의·인성 모델학교 △2013년 인성교육 선도 우수교 △2013년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 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美 교육부 차관 일행이 퇴계원고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지역의 학교관계자들의 내방이 잇따르고 있다.

수업이 달라지면 학생이 달라진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퇴계원고 선생님들은 창의·인성 수업준비로 유난히 바쁜 시간을 보낸다.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단원을 재구성하고, 타 교과와 연계된 주제를 선정하여 융합수업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프로젝트형 발표수업과 토론수업을 구성하여 수행평가를 계획한다.

학기가 시작되면 교사들은 토론, 글쓰기 활동을 강화하여 ‘내 생각 만들기’에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수행평가로 프로젝트형 발표수업을 수행한다. 모둠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여 결과물을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습득보다 더 큰 내면의 성장을 한다. 전 교과에 걸친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관된 수업과 평가를 하고, 전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관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창의·인성 교과 경진대회, 토론대회, 논술대회 등을 열어 우수학생을 시상하는 등 입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학생과 학



부모 모두 창의·인성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강명숙 교장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면서 “선생님들은 자기 교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의 수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과연구회, 함께 자라는 수업성찰의 장

교사들에게 창의·인성 수업은 보람 못지않은 상당한 부담을 준다. 그러나 퇴계원고에는 교과연구회라는 해결통로가 있다. 7개 교과연구회(사과나무, 4D 입체수학, 톡톡(Talk-Talk) English, GESH, 과학향기, 예술의 꽃·씨앗, 세계와 미래를 품은 교실)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교과연구회를 열어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수업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아 수정·보완하는 활동을 하면서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과연구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친밀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

창의·인성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창의·인성 교과경진대회를 교과연구회 단위로 운영한다. 국어과 교과연구



회 『사고과정이나날이무럭무럭』은 논술대회, 문예대회, 다독다독 대회 등을 개최하고, 영어과 교과연구회 『톡톡(Talk-Talk) English』는 Pop Song Contest, English Speech Contest 등 많은 교과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공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꿈 따라~ 미래 따라, 동아리 중심의 통합형 창의적 체험활동

퇴계원고는 ‘꿈 열매 맺기’라는 주제로 진로체험과 봉사체험을 통합하여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All Day 동아리 진로체험의 날에는 방송국 견학, 대학 탐방, 한국과학기술원 견학 등 교과 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진로체험을 한다. 교과 Day에는 과학 자율탐구 발표대회, Fun-Fun Science Day, GESH Festival, 창의 공방 경진대회, 수학체험전, English UCC Contest 등을 개최하여 지필고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도록 한다.

자율·봉사·진로 통합 전일제 창체의 날에는 학급특색활동, 기아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 특강 등 학급단위의 교내활동과 한울타리 위문공연, 교육재능 기부, 퇴계원지역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동아리 중심 활동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색사업은 동아리 테마기행이다. 선생님들은 2월에 새 학년도에 담당할 동아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동아리 테마기행을 준비하여 2학기 초에 2박 3일의 테마기행을 떠난다. 장소 선정·답사·계약,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정산까지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모두 챙기고 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각 교과를 좋아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자 하는 소수



의 학생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몇몇 학생들은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테마기행 보고서를 쓰면서 꿈을 따라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람을 찾는다.

테마기행 후 전 교사가 모여 테마기행 사례를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겪은 어려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동아리 테마기행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퇴계원 인성스쿨, 인성이 곧 글로벌 인재다.

강명숙 교장은 ‘인성이 곧 인재 육성이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 교육활동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교과 수업시간에는 우리말 바로 쓰기와 다문화 동영상 제작 발표회, 배심원 토론 수업과 디베이트 수업 등 학습내용과 수업방식의 다양화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창체시간에는 심성 함양 프로젝트 야생화 가꾸기와 1인-1기 프로젝트로 검도 수업을 한다.

1학년 학생들은 창체시간에 야생화를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닮아 간다. 4계절 꽃과 더불어 1학년을 보낸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검도를 배우면서 절도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기른다.

사제동행 프로젝트는 퇴계원 인성스쿨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어울마당 수요콘서트, 매주 목요일 저녁시간에는 사제 한마음 친선 축구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스쿨 농장, 위기학생과 함께 하는 성찰의 길 걷기 등 다양한 인성스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낙(樂)과 고(苦)의 길을 사제가 동행함으로써 기본이 바로 선 학생으로의 성장을 돕고 학교폭력 제로(Zero)를 실현하고 있다.

『꿈·희망 가꾸기』 Always School, 희망의 길을 열다.

퇴계원고 학생들은 시골지역의 특성 상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부 학생들은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Vision 방과후학교, Hope 방과후학교, Growth 방과후학교, Edu-Community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Vision 방과후학교에서는 느티울 캠프와 토요 틈새 학교를 열어 특기적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난타반, 보컬트레이닝반, 뮤지컬반, 메이크업반, 입시미술반 등을 개설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하였던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살려주고 있다.

강명숙 교장은 “21세기 배움의 장에서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키워드는 감성”이라며, “공부감성, 시험감성, 진로감성을 잘 살려 주도적으로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실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이에 맞는 교육활동으로 꿈꾸는 U 페스티벌, 1% 스티디 솔루션, 공부혁명 6주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Growth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Hope 방과후학교에서는 교사 선택제로 교과강좌를 개설하고, 창의심화 교실, 퇴계서당, 천하대반 등 Special Program을 개설하여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기초학력 미달 제로(Zero)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퇴계원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교육기부라는 나눔의 장을 마련해 주어 1:1 과외식 수업과 생생한 진학상담, 선후배가 함께 하는 산악등반·대학탐방 등으로 선후배 모두에게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Edu-Community 방과후학교에서는 STEAM 수업, 프로젝트 수업, 교과교실제 운영 등의 교사특강으로 수업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웃음 치료, 인문학 특강 등으로 선생님들에게 긍정의 힘을 심어 주고 있다. 그리고 생계유지형 맞벌이가정이 많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야간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전문가 과정, 자녀 성공지수 향상을 위한 부모의 임파워먼트 향상 기법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학부모의 역량 강화에 학교가 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특별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통과 첨단 조화...산업계가 좋아하는 대학

성균관대학교

글
•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 7월 하순 성균관대 명륜당을 찾은 1,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은 퇴계 이황 등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들이 학습하던 강당 등을 신기한 듯 둘러봤다. 국제 여름학기(서머스쿨)를 위해 온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삼성이 재단으로 참여하는 점에 끌려 성균관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석규 성균관대 국제처장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명륜당을 둘러보게 하고 전통과 첨단 조화를 이루는 학교라고 설명하면 모두 감탄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학생들도 성균관이 600여 년전에 만들어졌고 성균관대가 그 전통을 이으려 한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 ICN비즈니스스쿨에서 온 릴리아 즈미리는 “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삼성을 배우려면 성균

관대가 최적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대학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평가 최우수 대학

첨단과 전통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균관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공동 발표한 ‘2012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건축·기계·자동차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2008년부터 대학의 교육과정이 산업계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발표된 이 평가에서 성균관대는 매년 최우수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려 ‘기업이 선호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에는 자동차(기계공학), 보험(경영학), 증권(경영학) 분야, 2009년에는 정밀화학(화학공학), 2010년 전자·반도체·컴퓨터(전자공학·정보통신공학·컴퓨터공학), 2011년 금속철강(신소재공학·재료공학·금속공학) 등에서 성균관대는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성균관대는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꼽힌 비결로 바로 전통과 첨단과의 조화를 꼽는다. 첨단의 계기는 1996년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참여한 것. 연평균 1,000억원 규모의 재단 전입금이 첨단학과 개설과 산학협력을 뒷받침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업마인드’가 학교 곳곳에 스며들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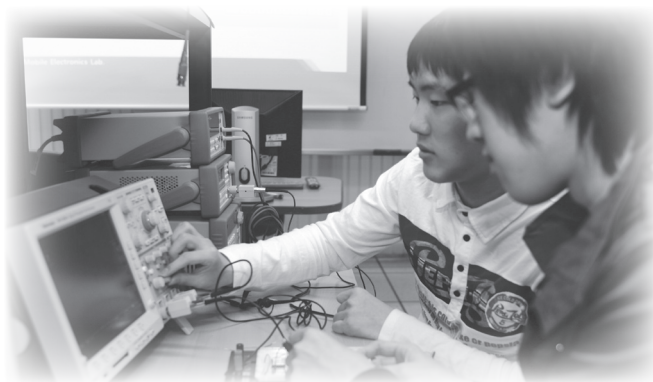
이 대학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교수사회에 2000년부터 교수등급제나 펠로십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수들의 연구 경쟁을 부추겼다. 교원 정년기준을 강화하거나 연구년제를 6개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 게재 논문 건수가 1996년 92편에서 2012년 3,577편으로 40배 가량

증가했다. 행정조직도 개편해 대학본부는 팀제를 도입하고 학부중심의 분권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리회계시스템(ERP)이나 경영혁신운동인 식스 시그마(6σ) 등 기업들이 하는 혁신운동을 대학경영에도 도입했다.

산학협력이 잘 되는 대학

성균관대는 기업과 산학협력도 열심이다. 이공계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자연과학캠퍼스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테크노벨리의 중심축으로서 산학연 협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연캠퍼스 대부분의 학과는 기업과 연계해 연구 및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성균관대는 산학협력 특성화학과와 전공트랙과정을 만들었다.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IT융합학과 등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성화 트랙에서는 4학년 때에 산학협동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반도체시스템학과나 석사과정인 휴대폰학과의 경우, 장학금 전액 지원과 함께 졸업생은 원할 경우 100% 삼성전자에 취업하게 된다. 산학협력교육원, 기업지원센터, 창업교육





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과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60여 명 규모의 산학협력 전담 교수는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을 돕는 기반이다.

수업과 교육과정 개발도 기업과 함께 진행한다. 정보기술(IT) 관련 학과의 경우, 학교와 기업이 50 대 50의 비율로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깎아보는 등 실제 모바일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을 직접 해보기도 한다. 최재봉 산학협력본부장(기계공학과 교수)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업과 최소 10번 이상 미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업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성교육 못 받으면 졸업 못해

성균관대가 기업에서 호평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바로 성균관의 전통을 살려 인성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점.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는 최근 대기업 인사담당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균관대 출신이 가장 근면 성실하고 직무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성균관대는 1996년부터 ‘삼품제(三品制)’라는 일종의 졸업인증제를 통해 인성교육을 해왔다. 첫 번째는 ‘인성품(人性品)’

으로 학생들은 4년간 최소 3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고, 인성과 관련한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창의품’과 공인외국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국제품’ 등 삼품을 획득하지 못하면 수료만 가능하고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다. 손다정 씨(유학동양학과 3학년)는 “교양필수인 ‘유학사상과 가치관’이나 ‘리더십’ 과목 등을 듣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소통과 배려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어디서든 예의를 갖추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매년 졸업식에 즈음해 김준영 총장과 졸업생 대표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성균관 문묘(文廟)에서 졸업생들의 성공을 비는 고유례(告由禮)를 지낸다. 고유례는 입학, 졸업, 건물 준공 등 학교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현들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성균관대 학생들에게 전통과 예절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인 인·의·예·지와 창의성 등을 가르치기 위해 조만간 ‘성균인성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삼품제와 마찬가지로 학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울려 성균관대는 올해 졸업생 취업률 69.3%로 3,000명 이상 종합대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약하는 캠퍼스 국제화

국제화도 성균관대가 중점을 두고 계속 확대하는 부문이다. 올해 성균관대 여름학기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 수는 1,087명이다. 처음 국제 여름학기를 개설한 2008년 161명에서 5년 만에

7배 가까이 커졌다. 외국의 유명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는 데다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투어와 공연 관람, 국제음식문화축제, 필드트립 등 외국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는 성균관대 학생과 외국학생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문화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성균관대는 국제 여름학기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유치, 내국인 교환학생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기준 3,131명이며 교환학생 수는 794명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1위다. 성균관대에 어학연수를 오는 외국인은 2010년 963명에서 작년 1,856명으로 늘었다.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해외 대학으로 진출하는 성균관대 학생은 2010년 925명에서 작년 1,628명으로 늘었다. 세계 75개국 776개 대학과 학생 교류를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있어 학생들은 원하는 국가의 대학을 선택해 1~2학기씩 공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7학기, 해외에서 1학기를 공부하는 '7+1 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원의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2년, 해외 대학에서 2년 공부해 두 학교 학위를 모두 따는 해외 복수학위 취득자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100% 영어 강의, 풍부한 장학금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경영학과와 글로벌경제학과의 대표적이다. 대학원 과정에선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SKK GSB)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스쿨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미시건대 로스 스쿨, 다트머스대 텍 스쿨,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등 미국 우수 MBA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또 법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중국 런민대, 칭화대, 상하이자오통대



및 일본 나고야대와 함께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대학생 교류는 3국 대학간 공동 복수학위로 발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융·복합 프로그램 늘려

'오래된 미래 대학'을 지향하는 성균관대는 미래첨단산업 분야로 융·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대학'으로 선정된 성균관대는 대학원 과정으로 '휴먼ICT융합학과'를 신설해 인문적 상상력과 ICT 관련 공학 지식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미래 물 산업 시장에 적극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수자원전문대학원,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으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을 기르는 방재안전공학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서비스 융합디자인 인력을 육성하는 서비스융합디자인 협동과정 등을 대학원에 개설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세계적인 석학과 우수한 학생 확보,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아시아 10위, 세계 50위의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20'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이 및 학업중단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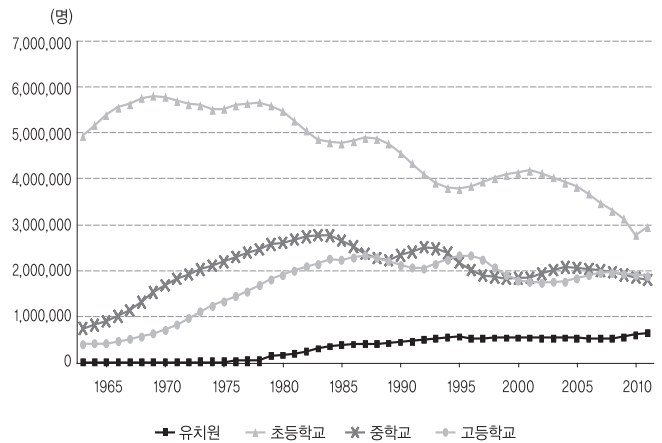
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 Focus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수집·생산하는 교육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수 감소와 학업 중단자 문제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준비하였다.

I. 학교급별 학생 수

1965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급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베이비붐 세대」와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970년대 초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1980년대 초 2차 베이비붐 세대(69~75년생), 1990년 초 베이비붐 에코 세대, 200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 폐지 영향 등으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를 보인다. 중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의 경우, 꾸준한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4년 평준화제도 도입,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로 1980년대 중반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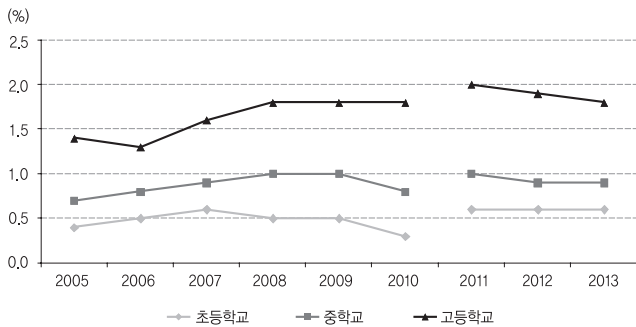
[그림1] 학교급별 학생 수(1965-2013)

※ 출처 : 교육통계DB

II. 학업중단

초·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대체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기준의 변화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최근 3개년 추세만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2011년 이후 매년 0.1%p씩 감소하였으며, 중학교는 2011년 1.0%에서 2013년 0.9%로 0.1%p 감소하였다. 반면, 초등학교는 2011년 0.6%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학업중단 사유별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부적응에 의한 학업 중단자는 전체 학업 중단자의 50.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의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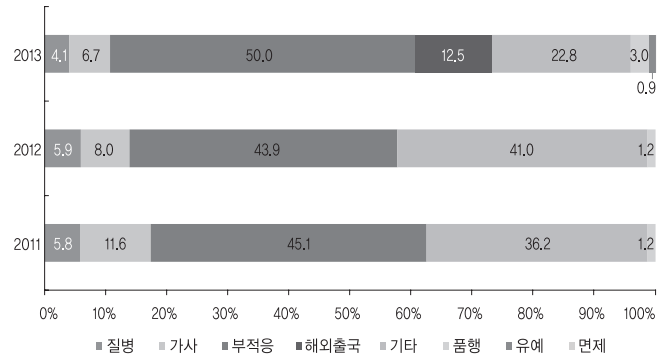


[그림2] 학제별 학업 중단률의 변화(2005-2013)

※ 출처 : 교육통계DB

※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 1)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2013.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 2)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3)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 4)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 5) 2010년 이전과 2011년 이후 조사 기준의 변화로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함.



[그림3]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별 학업 중단자 비율의 변화(2011-2013)

※ 출처 : 교육통계DB

※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2013.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 3) 2013년 조사 항목이 개정(자퇴/퇴학 구분 신설, 해외출국 구분 추가)됨에 따라 2013년 이전 분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질병 : 정서장애, 신체장애 등,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게임중독) 등
가사 :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 간호 등)
부적응 :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해외출국 :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기타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 5) 품행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 6) 2011년 ~ 2012년에는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의 기타에 포함됨
- 7) 고등학교에서의 유예, 면제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물어보세요!

■ 업무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모든 학교들에 대하여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시설, 재정 등에 대한 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전국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설, 프로그램, 교·강사 등에 대한 통계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OECD 교육지표 사업의 참여를 통한 국제비교자료를 산출하며, 교육통계자료 대국민 서비스 및 교육통계자료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산출물 및 산출지표 :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OECD 교육지표 편역본,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등 자료집과 교육통계 결과를 활용한 통계결과(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업중단자 수, 취업현황, 평생교육기관 현황 등) 및 교육지표(진학률, 취학률, 취업률, 평생학습참여율 등)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esi.kedi.re.kr>)

■ 어플리케이션 : 2012 교육통계('iOS 앱스토어' 및 'Android 플레이 스토어'에서 "교육통계" 검색)

■ 문의전화 : 02)3460-0380, E-Mail : service@kedi.re.kr



‘2013년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양성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7월 23일(화)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1회 창의인재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와 교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인사말,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 초·중등, 대학분야 등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이장우 창조경제연구원 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이 ‘창조경제 생태계 키워드: 창의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홍국선 서울대학교 (주)기술지주 사장(서울대학교 교수)이 ‘대학교육과 창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윤정 한국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이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인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이 ‘초·중등교육에서 창의인재 양성의 동향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은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진행으로, 기업 및 청년을 대표해 홍대순 아서디리틀 부회장과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가, 언론인으로는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교육현장을 대표해 배우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과 박준구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천안상업고등학교 교장)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가, 그리고 연구기관을 대표해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외협력실장 등이 각각 패널로 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창의인재 교육포럼’은 새 정부의 교육비전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창의인재 교육포럼은 창의인재 양성과 관련된 교육정책 및 현안을 중심으로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 연구자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8월 1일(목)~8월 2일(금) 서울대학교 문화관 및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10개국 청소년 연구자 및 멘토 교수, 3개국 대사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The 4th Interna-



tional Conference for Youth (ICY)』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학술대회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해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 박경빈 한국영재학회 회장과 이경화 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인 이애주 서울대 명예교수와 한국전통춤회의 승무춤 축하공연과 김희준 서울대 명예교수(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의 'Many Roads to Success'라는 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이를 동안 5개 세션 184팀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포스터논문은 64편이 게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영역별로 구성된 멘토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로서 자신의 꿈과 끼를 디자인하고 일구는 값진 기회를 가졌으며, 관심주제의 또래친구들과 토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식에는 서울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우수청소년학자상 시상식, 포스터논문우수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참가한 학생들의 논문과 연구일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우수 연구논문자료집 'I. See, Why?'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폭넓게 교류하고 우수 학자들과 조우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글로벌 연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회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꿈과 끼,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의 과제’ 주제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은 6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7개 교육 유관기관과 일선학교 교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과 끼,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의 과제’를 주제로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현장토론회는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축사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하유경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팀장의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Art · Mathematics)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어, 융합인재교육 시범학교인 삼양초등학교의 고문섭 교감이 ‘현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정진수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



교육정책단장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해'를, 이 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이 '초·중등 우수인재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 장치훈 삼성초등학교 교사, 양순택 한림여자중학교 교사, 조성배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융합인재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방안' 주제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6월 26일(수), 27일(목) 양일간 제주에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7개 교육유관기관의 자유학기제 담당자와 교육정책네트워크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핵심 운영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워크숍은 올해 3회차를 맞이한 가운데, 금년에는 새 정부 초·중등교육

정책의 핵심으로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워크숍 1일차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남부호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장학관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하고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이 자유학기제 운영의 세부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유관기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자유학기제 관련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면서 향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2일차에는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학교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와 제주한라중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 실행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에서는 매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계 정책워크숍 개최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정책당국과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의 주요 정책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 간 상호 이해의 장을 제공하여 해당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집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kedi.re.kr>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방송고e스쿨
<http://www.cyber.hs.kr>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edi.re.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중단연구
<http://kels.kedi.re.kr>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사교육절감형량의경영학교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KEDI Idea Bank
<http://idea.kedi.re.kr>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IEDC)
<http://iedc.kedi.re.kr>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국가평생교육통계
<http://lifelong.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http://www.isi.go.kr>



자기주도 학습전형
<http://sellas.kedi.re.kr>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http://mentor.kedi.re.kr/>

Drea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은 희망이고 인재는 미래입니다.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이루는 교육,

미래사회를 여는 역량·지식·인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41년간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이제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세계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